Entertainment p/20
셰프에게 점령당한 TV

metro
메트로 2015년 3월 30일 월요일

Sports p/21
KIA, LG에 통쾌한 역전승

결국 세금만 5조 추가

3월 담배 판매 다시 늘어… 작년 80% 수준 회복

연간 세수 11조원 넘을 듯… 인상 전보다 5조 늘어

롯데마트 한국 채소 베트남서 먹혔다

적자 회사 돈 빼내 카지노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또 원정도박

국회 자원외교 청문회 무산 위기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청문회를 한 차례도 열지 못한 채 사실상 활동을 마칠 위기에 처했다. 여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관련자들의 증인채택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가 전혀 좁혀들지 않은 때문이다.

특위 여당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이명박정부 흠집 내기에만 매달리면 국정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없다"고 야당의 증인채택 요구를 일축했다. 야당간사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핵심 인사를 빼고 실무자들만 불러 청문회를 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이대로 증인이 합의되지 않으면 특위는 청문회 없이 활동을 마친다. 여야가 합의할 경우 25일간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작아보인다.

특위는 활동 초기 캐나다 하베스트 부실인수 의혹 등 다양한 자원외교 의혹을 제기하며 관심을 모았다. 석유공사가 캐나다 하베스트사 자회사 '날' 인수 과정에서 1조3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의혹과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사업에서의 투자 손실액이 8000억원에 달한다는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정작 해당 사업을 직접 지휘한 인사들은 한 차례도 국회에 부르지 못해 용두사미격으로 끝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애초 여야 간사는 에너지 공기업 3사를 대상으로 31일과 다음달 1일, 3일 세 차례 청문회를 열고 활동 마감일인 7일에는 종합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막상 증인 채택에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새정치연합 측에서 이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의 책임론을 꺼내들자 새누리당이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맞서면서 특위는 점차 동력을 잃었고 결국 8~16일 해외 현장시찰을 끝으로 더는 일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검찰은 자원외교 기업들의 비리 수사를 시작했고, 감사원도 최근 해외자원개발 성과 감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제 국회가 나설 자리가 없다는 회의적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illegible]기자

2015 프로야구는 메트로신문과 함께... 개막전 잠실 등서 특별판 배포 28일 오후 두산베어스와 NC다이노스의 2015 프로야구 개막 경기가 열린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한 야구팬이 메트로신문의 프로야구 특집기사를 읽고 있다. /[illegible]기자

안전처 세종시 이전은 총선용?

정치권, '충청표심 잡기 위한 승부수' 해석
공무원 '정치적 야합' 비난·행자부 복귀 요구도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을 두고 내년 총선을 겨냥한 이완구 국무총리의 작품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당·정·청이 충청권의 표심을 얻기 위해 두 부처를 이전 대상에 갑자기 포함시켰다는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29일 정치권에선 당·정·청의 이번 결정을 놓고 내년 4월13일 치러질 제20대 총선에서 충청 표심을 잡기 위한 여권의 '승부수'라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세종시 추가 이전대상에 포함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다. 안전처 공무원들 사이에선 이번 세종시 이전 결정을 '정치적 야합'이라며 비난하는 분위기가 거세다.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선 다음 인사 때 행정자치부로 복귀시켜달라는 요구까지 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3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국무총리,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고위 당·정·청 회의를 하고, 안전처 인사처를 연내 세종시로 이전시키기로 합의했다. 당·정·청의 이런 결정은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기조와 정부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안전처와 인사처는 잔류에 무게가 실렸다. 지난해 11월19일 정부 서울종합청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서울에 터를 잡은데 이어 12월 11일 발표된 중앙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 3단계 계획에도 행정자치부와 함께 이들 부처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충청권 여당 의원 출신인 이 총리 취임 직후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서울 잔류로 가닥이 잡혔던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추가이전 논의가 진행돼 결국 행정자치부를 제외한 안전처와 인사처가 세종시 이전대상에 포함됐다. 총선용 이전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안전처의 전신인 소방방재청은 원래 세종시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아직 이전 결정도 된 것이 없다"며 "당·정·청이 합의했다는데 결정된 것을 전달받은 것도 없다"고 했다.

/[illegible]기자 yumal@metroseoul.co.kr

희귀병 소녀와 등교하는 안내견

metro Brazil

안나 루이사 줄리누(9)는 한 달째 '티파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티파니는 두 살 난 암컷 도우미견이다. 안나는 티파니와 등·하교 시는 물론이고 수업도 늘 함께 듣는다. 안나의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도 티파니는 인기 스타다.

27일(현지시간) 메트로 브라질은 안내견 티파니와 함께 생활하는 안나의 학교 생활을 소개했다. 안나는 소뇌에 문제가 있어 시력과 움직임 그리고 호흡능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희귀병을 앓고 있다. 혼자서 원활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녀는 티파니의 도움이 절실하다. 이에 본래 동물 출입이 금지되었던 학교에서 '장애아동을 돕기 위한 안내견을 허용하자'는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티파니의 출입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NGO단체 직원이 학교에 방문해 안내견 다룰 때의 주의사항들을 교육했다.

안나의 어머니인 안나 파울라 가이아(38)는 "안나가 여러 번의 수술 이력을 갖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안나가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학교 측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한 학교 관계자는 "티파니의 학교 등원을 학부모들도 반기고 있으며 수많은 격려 메시지 또한 받았다"고 밝혔다.

이정현 '광주 쓰레기' 발언 논란

새누리당 광주 서구을 4·29 보궐선거 필승결의대회 중 나온 이정현 최고위원의 '광주 쓰레기'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26일 새누리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정승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 과정에서 "(2012년 총선에서) 광주 시민들이 이정현이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저는 쓰레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 같은 쓰레기를 끄집어내서 탈탈 털어가지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시키고 홍보수석을 시킨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최고위원은 2012년 총선 패배 이후 청와대에 있다가 지난해 재보전에 출마해 자신의 고향인 전남 순천·곡성에서 당선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음날 논평을 통해 "이 최고위원의 쓰레기 발언은 광주시민을 우습게 여기는 시민모독 행위"라며 "인재를 알아보는 것은 전적으로 유권자의 몫"이라고 공격했다.

이 최고위원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광주에서, 호남에서 제2, 제3의 이정현으로 키워달라는 뜻을 간절하게 전한 것"이라며 "길게 보고 호남의 먼 미래를 위해 인재를 두루 키워서 큰 재목으로 써 달라는 의미"라고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비판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이번 논란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기세다. 조영택 새정치연합 광주 서을 후보는 29일 성명을 내고 "광주 시민이 언제 쓰레기 취급을 했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광주에서 낙선한 모든 후보들이 쓰레기라는 것인지 심각한 인격 모독이자 인권유린에 해당된다"며 "광주시민을 모독한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광주 서을에서는 조 후보와 천정배 무소속 후보가 '2강'을 형성하며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 정승 새누리당 후보가 이를 뒤쫓고 있다. 이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이 같은 판세에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된다.

/[illegible]기자

'부패와의 전쟁' 이번 주 갈림길

정동화·성완종 소환조사…'MB정권 실세' 거론될까

박근혜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이번에야말로 비리의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의 덩어리를 들어낼 수 있을까.

정부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25일로 17일이 지났다. 방위사업, 자원외교, 대기업 비리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검찰의 손길이 교육계 비리에까지 미치고 있다.

평가는 갈린다. 재계에서는 경제적 악영향이 우려될 정도로 전방위적인 기업 사정이라고 우려한다. 정부 정책에 고분고분 따르지 않는 재계를 길들이자는 의도라고 보는 측에서 나오는 말이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용두사미로 끝날 것 같은 분위기라는 실망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명박정부의 실세들이야말로 비리의 뿌리라고 보는 측에서 나오고 있다. 아직 더 지켜보자는 기대어린 시선도 있다.

어느 쪽의 평가가 맞는 걸까. 이번 주 검찰이 수사를 지켜보면 대강의 답이 나올 듯하다. 검찰은 이번 주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부회장은 이상득 전 의원 등 이명박 정부 실세들과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간 연결고리로 지목된 인물이다. 성 전 회장 역시 새누리당 의원 출신으로 이 전 의원과의 친분설이 파다하다.

포스코건설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맡고 있고, 경남기업 수사는 특수1부가 맡고 있다. 한각에서는 검찰의 수사 방향을 알고 싶다면 수사 책임자에 주목하라고 말한다. 특수2부는 조상준 부장검사가 지휘하고 있다. 조 부장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인연이 깊다. 우 수석이 대구지검 특수부장으로 있던 2005년 평검사로 함께 수사한 경험이 있다. 특수1부는 임관혁 부장검사가 지휘하고 있다. 임 부장 역시 우 수석과 법무부에서 함께 일한 경험이 있다. 여기에 특수 수사를 총지휘하는 최윤수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까지 우 수석과 대학동기로 개인적인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미 지난 1월 우 수석이 민정수석에 임명되자 검찰의 강도 높은 사정수사를 예견하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어 2월 검찰 인사에서 우 수석과 인연이 깊은 특수부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에 배치되자 이 같은 관측에 더욱 힘이 실렸다. 이번 부패와의 전쟁이 그냥 용두사미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기대는 이 같은 관측을 배경에 두고 있다.

반면 회의론자들은 실제 수사의 성과에 주목하라고 말한다. 이완구 총리의 대국민담화 이후 2주가 넘는 시간에 이명박 정부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는 소문만 무성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대검 중수부 시절이었다면 이미 담화 직후 실세들에 대한 줄소환이 이어졌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현재 방위사업 합동수사단이 거둔 성과는 군 장성들과 거물급 방산 로비스트 정도다. 검찰이 특수1부, 특수2부, 특수4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등을 총동원해서 거둔 성과도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정도에 그치고 있다. "결국 몸통은 놔두고 깔따리만 몇 명 감옥에 보내고 끝내지 않겠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애초 방산비리, 자원외교 비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을 수사할 의지가 있었다면 4대강사업을 제외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 검찰이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연루된 포스코 측 전·현직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소환 조사에 착수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0일 이 총리의 담화와 관련해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 등을 언급해 놓고도 22조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하고 담합비리로 얼룩진 4대강사업의 수사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의 언급도 없다는 점은 이번 비리척결 담화문의 진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패척결이 성역을 정해 놓고 벌이는 국면전환용 정치적 이벤트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주 정 전 부회장과 성 전 회장, 두 사람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에 따라 부패와의 전쟁은 그 성격이 갈릴 전망이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리콴유, 우리 시대의 기념비적 지도자"

朴 대통령, 국장 참석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오후 싱가포르 국립대학 문화센터에서 거행된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 국장에 참석해 고인을 기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장례식장에 도착해 조문록에 "리 전 총리는 우리 시대의 기념비적인 지도자였다"며 "그의 이름은 세계사 페이지에 영원히 각인될 것이고 한국민은 리 전 총리를 잃은 슬픔을 싱가포르의 모든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적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50분쯤 장례식장에 도착해 본행사와 리셉션을 포함해 4시간15분 동안 행사장을 지켰다. 검정 바지 정장 차림의 박 대통령은 행사에 초청된 각국 대표들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했다.

박 대통령은 리 전 총리와 한국과의 각별한 인연과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맺어온 인연 등을 고려해 이번 장례식에 참석했다.

리 전 총리는 1979년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 초청으로 처음 방한한 이래 6차례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박 대통령은 1979년 양국 정상 만찬 당시 영애 자격으로 통역을 맡아 리 전 총리와 인연을 맺었고, 2006년 5월과 2008년 7월 리 전 총리를 면담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의 국가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29일 새벽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에 도착, 공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리 전 총리 내외에 대해 "부모님과 같은 정을 수는 분들"이라며 "2006년 회동 시 그 분의 눈빛은 여전히 강력했고,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저런 모습일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울컥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번 국장에 동아시아정상회의(EAS) 회원국 등 18개국을 초청했으며 박 대통령을 비롯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위안차오 중국 국가부주석,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토니 애벗 호주 총리, 이고리 슈발로프 러시아 제1부총리, 윌리엄 헤이그 영국 보수당 하원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이 국외 정상급 지도자의 장례식에 직접 참석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직 대통령의 해외 조문은 지난 2000년 6월8일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 장례행사에 참석한 이래 15년 만이다. /정윤나기자 jyoona16

문재인 "50일간 마늘·쑥 먹었다"

취임 50일 기자간담회

"50일동안 마늘과 쑥을 먹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9일 취임50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취임 이후 당의 변화와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당의 변화 노력을 단군신화에서 웅녀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에 빗댄 표현이다. 문 대표는 "우리 당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변하려면 마늘과 쑥만 먹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더 쑥을 먹어야 우리 당이 제대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했다. "진도로 말하자면 이제 겨우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려낸 정도로, 이것을 활활 타오르게끔 저희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문 대표는 취임 이후 '유능한 경제정당과 안보정당론'을 새정치연합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삼았다. 우리나라에서 경제와 안보는 보수정당이 선점해 온 이슈였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문 대표가 내년 총선을 의식해 산보(?)를 잡기 위한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취임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일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있다. 심지어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진보의 어젠다인 복지정책을 들고 나온 것을 벤치마킹한 것이냐는 목소리도 있다.

취임 50일 기자간담회 갖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연합뉴스

이날 문 대표는 이에 대해 "우클릭을 한다거나 중도나 보수를 지향한다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수권능력을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유능한 경제정당, 안보정당은 왼쪽과 오른쪽,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수권정당이 되려면 반드시 갖춰야 하는 능력"이라고 했다. "야당이 그동안엔 정부에 대해 제대로 비판하고 견제하고, 야당다운 야당이 되는 것으로 (야당의) 몫을 다할 수 있는데, 야당으로 머물지 않고 수권을 하려면 비판만이 아니라 실제로 정권을 맡았을 때 경제와 안보에서도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자유(?)기자 [illegible]

서울 서남권 내외국인 합동 '자율방범대' 내달부터 활동

중국동포의 절반이 넘는 13만명이 거주하는 서울 서남권 지역에 다음달 내외국인 합동 자율방범대가 출범한다.

서울 거주 외국인 주민 42만명 중 중국동포는 23만명(57%)이다. 중국동포의 55.9%인 약 13만명이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등 서남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시는 기존에 내국인 혹은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는 있었지만 내외국인과 시, 자치구, 경찰이 참여해 합동으로 자율방범대를 꾸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합동 자율방범대는 지역의 공공질서 확립과 치안 유지를 목표로 기초질서 캠페인과 단속, 우범지역 순찰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시는 올 한 해 우수한 활동을 보인 자율방범대 단체와 개인을 선정해 내년 상반기에 모범 외국인주민으로 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내년 활동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국적을 불문하고 거주지 구청 자치행정과 또는 경찰서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합동 자율방범대가 동네 치안과 공공질서를 함께 지켜가며 지역 공동체로서 자연스럽게 융화되는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stablishment of Korean and Foreigner Joint Self-Crime Prevention Squad in South Western Area of Seoul

Seoul is establishing Joint self-crime prevention squad composed of Koreans and foreigners in the south western area where half of the population of Chinese compatriots (130,000) are currently living as Seoul residents. Among the 420,000 foreign residents in Seoul, 230,000 (57%) are Chinese compatriots. And 55.9% which is about 130,000 of them live in Guro-gu, Guem cheon-gu, Yeongdeungpo-gu, Gwanak-gu and other south western regions. There was self-crime prevention squad composed of Koreans and foreigners in the past, but it's their first time joining with autonomous district patrol and the police. Joint self-crime prevention squad will set their aim on establishing public order and public peace. Variety of activities such as basic order campaign and patrolling crime ridden district will be carried out. Seoul will nominate model self-crime prevention squad group as well as individuals on the first half of next year and award them with Mayor Commendation along with extra activity budget support of next year. Any residents who wish to participate can apply regardless of your nationality at the autonomous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their residential district or the police office. Seoul is hoping that Joint self-crime prevention squad will bring public peace and establish public order naturally and blend in with the community.

/메트로서울 Chris Kim(번역) 정리

영등포경찰서 [illegible] 안전과 질서 [illegible]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원격조종 여객기 도입되나

저먼윙스 '고의추락설' 계기… 해킹 우려 반대도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의 추락사고 여파로 미국서 원격조종 여객기 도입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27일(현지시간) CNN을 포함한 미국 주요 언론들은 "원격조정 여객기는 현재 사용하는 자동소종장치(오토파일럿)와 기술적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항공 기술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이 같은 여객기 원격조종 도입론에 대한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찬성론자들은 여객기의 급격한 고도하강과 같은 비정상적인 움직임에 대비하기 위해 조종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여객기를 특정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은 원격 조종과 유사하며 전투기의 무인조종이 이미 현실화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단계적인 시스템 작동을 통해 기계의 오작동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상 곳곳에 기지국을 세워 제어 신호를 보내고 여객기 자체에서도 동시에 두 곳 이상으로부터 제어 신호를 받을 때만 움직이도록 조종 장치를 만들면 오류 신호의 전달이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이러한 원격조종 도입이 시기 상조라고 주장한다. 비상상황 발생 시 기체의 조종사가 문제 해결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란 이유에서다. 덧붙여 이들은 원격조종 여객기에 대한 승객의 신뢰도가 낮은 상태라는 점과 시스템이 해킹당할 경우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점을 들어 원격조종 도입을 반대한다.

한편 사고 예방 차원에서 여객기 조종석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영상기록장치를 통해 음성기록장치에 담을 수 없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영상기록장치가 나쁜 의도를 가진 조종사의 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세이 기자 [illegible]

일보는 것이 가능할까? 중국 산시성 타이위안에 있는 레스토랑의 남자 화장실. 2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미러는 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실소를 금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시스

AIIB·일대일로 '中 주도 세계 경제질서' 탄생

한국·러시아·호주 등 잇따라 참여… 유럽·아프리카 육해상 연결 추진

세계 경제 질서가 중국 주도로 빠르게 재편될 조짐이다.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설립을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한국을 비롯한 러시아, 호주, 브라질 등이 잇따라 참여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자신감을 얻은 시진핑(사진) 중국 주석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라는 대형 프로젝트까지 발표하며 세계 최강 미국의 자존심에 커다란 생채기를 내고 있다.

◆참여국 40개국으로 늘어날 듯

신화통신은 러시아, 호주, 브라질 등이 AIIB 참여의사를 잇따라 밝혀 참여희망 국가와 지역이 37개국으로 늘어났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따라 마감시한인 이달 말까지 40개국 가까이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해 10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창립 체결식은 열 때만 해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위주의 21개국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성과다. AIIB는 지난 12월 영국이 참여 선언으로 탄력을 받기 시작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스위스가 뒤를 이었다. 한국과 터키도 참여를 선언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AIIB 참여국을 살펴보면 세계 권력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경제력에 걸맞은 영향력을 추구하는 가운데 중국의 외교가 얼마나 정교해졌는지를 보여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견제하던 미국도 협력 선회

AIIB를 심하게 견제해온 미국도 최근 서방국가의 참여가 잇따르면서 AIIB와 협력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특히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로 AIIB 참여회원국 신청 마감을 앞두고 30~31일 중국을 방문키로 해 그 배경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이콥 루 재무장관이 방중기간 AIIB와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추정했다.

◆ '개방·포용으로 세계와 협력'

중국의 자신감은 더욱 높아졌다.

이날 중국 정부는 시 주석의 주도로 진행 중인 '일대일로' 구상의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일대일로'는 육상의 실크로드 경제지대와 해상의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등 양대 축으로 추진되며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대륙과 주변 해역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시 주석은 "일대일로 건설과 AIIB는 모두 개방돼 있다"며 "독주가 아닌 개방과 포용을 지향하며 중국이 혼자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나라들과 합창을 하는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국명 기자 [illegible]

목숨 건 나이지리아 대선 투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보코하람의 테러 경고에도 불구하고 28일(현지시간) 실시된 나이지리아 대선에서 우려했던 테러가 발생했지만 수천만 명에 달하는 유권자들이 목숨을 걸고 투표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은 동부 욜라주에서 보안요원이 테러 경계를 위해 투표하러 온 주민에게 두 손을 높이 들 것을 요구하는 모습. /AP 연합뉴스

문턱 낮춘 은행, 경단녀 일자리 확충

국내 은행 채용규모 확대
특성화고·퇴직자 등 2200명 선발
"스펙보다 실무능력 중심 모집"

지난해 실적 악화를 이유로 채용 인원을 줄인 국내 주요은행이 올해 대거 신규인력을 모집한다. 신한·국민·기업은행은 경력단절 여성과 특성화고 졸업예정자의 인원 증가로 총 2200명을 채용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89% 증가한 규모다.

신한은행은 올해 대학 졸업자 등 100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90명보다 70% 증가한 규모다.

청년채용은 ▲일반직 350명 ▲특성화고 70명 ▲장애·보훈 특별채용 80명 등 총 500명 규모로 전년 대비 약 35% 늘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시간선택제 인원도 280명 모집할 예정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해 처음으로 시간선택제 RS(Retail Service)직 220명을 영업점에 배치했다.

부지점장 이상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시간선택제 전담관리직에도 220명을 채용한다. 이들은 하루 2시간 동안 1개 영업점의 자점감사와 사고예방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다음달 중순 대졸 상반기 채용과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채용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어 5월 중순에는 장애·보훈 특별채용을 실시한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356명)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800여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신입행원은 상·하반기 400명, 경력단절여성은 300명, 하계·동계 청년인턴은 300명 등이다.

대졸과 고졸 모집 인원은 각각 지난해보다 110명, 35명 늘었다. 특히 경력단절여성 모집은 올해 처음 추진됐다.

국민은행은 이번 채용에서 학력이나 자격증 등 획일화된 스펙 중심이 아닌 '현장 맞춤형' 인재 채용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특성화고 채용 비중을 확대하고 지방의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처음으로 지방 지역 방문 면접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또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는 3~4년 후에는 매년 700~800명의 퇴직자가 생긴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대졸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5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기업은행도 지난해(220명)보다 두 배가량 늘린 400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대졸 등 지난해 전체 총 500명가량이던 채용 인원을 올해 상당폭 확대할 예정이다. 개인금융서비스직군(텔러직)은 150명, 특성화고 졸업생 100여명 등이다. 경력단절 여성도 신규 채용한다.

채용 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도 조기통합이 성사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규 채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은행업계가 앞서서 경력단절 여성,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등의 채용인원에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관계자는 "입사지원서에 어학점수와 자격증 기재란을 없애거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직무능력 평가를 도입하는 등 스펙보다는 실무능력 중심의 인재를 채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수은, CABEI와 전대금융 체결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26일 부산 조선호텔에서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과 1억 달러 전대(轉貸) 금융 한도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은은 이번 계약 체결에 따라 향후 한국 기업이 CABEI 역내 회원국 수출 시 원활한 금융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대금융이란 수은이 외국 현지은행과 신용공여 한도계약(Credit Line)을 체결하고, 현지은행은 수은에서 유리한 조건의 자금을 조달해 한국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현지 기업에 대출해주는 금융기법이다. 한국 기업은 이를 활용, 진출 지역에서 프로젝트 수주와 현지거래 확대에 따른 수출 확대가 가능하다.

서울 잠실 주공5단지아파트 일대. /뉴시스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급증 1만4000여건… 9년 만에 최다

전세난·금리인하 영향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올해 들어 석 달 째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연립·다세대 주택 거래량도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이 늘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집주인들이 가세하며 서울 주택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7일 현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1만1459건으로, 지난달의 9478건을 넘어섰다. 이는 실거래가 조사 이래 3월 거래량으로는 가장 많았던 2006년의 1만1854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이달 집계가 아직 27일까지만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2006년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시장은 지난해 말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3법 통과 이후 1월부터 석 달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완화 정책으로 당분간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데다 재건축 이주 등으로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임대수요가 매매로 돌아선 영향이 크다. 최근 저금리 기조 속에 전세가격이 매매가의 80~90%를 웃도는 곳이 늘자 소형 아파트 등을 구입해 임대사업을 하려는 수요가 많아진 것도 거래량 증가의 원인이다. 아파트 거래가 늘자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도 따라 늘었다. 3월 현재 거래량4629건으로 지난해 3월(3762건)을 넘어선 것은 물론, 2008년 3월(7324건)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다.

아파트의 경우 노원구 거래가 가장 많았다. 이달 27일 현재 1066건을 기록해 올해 들어 처음 1000건을 넘어섰다. 마곡지구 입주 등의 영향을 받은 강서구가 두 번째로 많은 930건이 거래됐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라면 올 한해 서울 아파트 총 거래량도 조사 이래 최대치인 지난 2006년 13만7216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서울 아파트 전세난이 이전하고 금리 인하 영향 등을 고려하면 구매수요는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철기자

안심전환대출, 오늘부터 20조 추가 공급

저소득층 우선 … 고정금리·제2금융권 대출자는 제외

안심전환대출이 30일부터 20조원 추가로 공급된다. 단 제2금융권 대출은 도입되지 않으며 더 이상 공급 확대는 없을 전망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 한도가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30일부터 20조원을 더 공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를 적용받거나,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고정금리의 장기 분할상환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이는 주택가격 9억원, 대출액 5억원 이하의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 등에 대해 연 2.53~2.65%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 수준과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돼 출시 첫날부터 월 한도액이 사실상 동났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이 출시 4일만에 당초 계획했던 20조원 한도를 거의 소진했다"며 "금리 변동의 불확실성이 있는 국내외 경제 금융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로서도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적극 추진해야할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임 위원장은 다만 "추가 증액규모 20조원은 주택금융공사의 자본여력 상 공급 가능한 최대 규모"라며 "더 이상의 공급확대는 없다"고 못박았다.

추가로 공급하는 20조원은 기본적으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은행 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취급조건도 기존 지원분과 동일하다.

임 위원장은 "이번 제도는 단지 금리를 낮추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변동금리와 일시상환 가계부채를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질적인 개선을 가하는 것"이라며 "고정금리로 대출받아 원금을 상환중인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2금융권 대출 도입도 없던 일이 됐다.

그는 "제2금융권의 경우 검토했지만 금리와 담보여력, 취급기관 등이 너무나 다양해 통일된 전환상품을 협의해 만들어 내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디딤돌 대출 등 저금리 주택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에 공급하는 20조원을 내달 3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되, 신청규모가 20조원에 미달하는 경우 요건에 맞으면 전부 공급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최대한 저소득 계층에 우선 공급한다는 취지로 소규모 주택에 우선권을 주는 한편 선착순에 따른 창구 혼란과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며 "안심전환대출은 원금을 갚아나가는 구조이므로 본인의 상환능력을 꼼꼼히 따져 달라"고 당부했다.

/박이란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56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01

은행권, 금융영토 확장 가속화

中·동남아 현지경영 확대 저성장 돌파구 찾기 총력

국내 은행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저금리와 저성장 추세가 고착화되는 국내 시장에서의 영업력 한계에 따른 조치다.

이들 은행은 특히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 등을 집중 공략해 영업망을 확충하는 한편 현지경영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20일 필리핀 중앙은행(BSP)으로부터 지점설립 인가를 받았다. 필리핀이 외국계 은행에 지점설립을 승인한 것은 지난해 12월 금융시장을 세계방한 이후 일본계 은행에 이어 두 번째다.

그간 신한은행은 지역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필리핀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지속해왔다. 또 작년 하반기 필리핀 자유구역청과 주한 필리핀 대사관과 손잡고 필리핀 투자설명회도 개최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산 구축 등 지점 설립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마닐라지점을 개점할 예정"이라며 "필리핀 현지 상황에 맞는 현지밀착 영업 전략을 통해 고객에게 다가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베트남 호치민시 화교상권지역인 안동지역에 현지화 특화점포인 안동지점도 열었다. 이는 순수 베트남 고객 위주의 영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지인을 지점장으로 선임하는 등 리테일 시장 확대에 주력하게 된다.

신한은행은 베트남 호치민시 화교상권지역에 현지화 특화점포인 안동지점을 열었다.

우리은행은 인도네시아 소다라은행 인수에 성공하여 111개의 현지 점포를 확보하게 됐다.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은 지난 25일 진행된 주주총회에서 "올해 해외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며 "해외 진출 지역과 사업 영역도 다양한 방면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해외 영업망을 확보한 우리은행 역시 해외에서 신성장동력을 구축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은행은 18개국 185개 국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35개 점포가 동남아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특히 우리은행은 인수합병에 초점을 두고 영업망을 확대하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인도네시아 현지 은행인 소다라은행과 합병했으며 작년 캄보디아 소액대출기업인 말리스와 필리핀 저축은행 등도 인수했다.

앞서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해외 SOC 사업에 적극 진출해 글로벌 투자 영역을 다원화하겠다"며 "동남아 현지은행 등에 대한 M&A도 추진해 해외 수익비중을 현재 6%에서 10%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하나금융은 글로벌 수익 비중을 2025년까지 40%이상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24개국에 127곳의 해외 영업망을 갖춘 하나금융은 소매영업에 강한 하나은행 강점과 기업금융에 경쟁력을 가진 외환은행의 장점을 모두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지난해 3월과 12월 인도네시아와 중국에서 두 은행의 해외 통합법인을 출범시켰다.

아울러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 등 지역에 다수의 네트워크를 신설하고 현지 금융사와의 합작 등을 통해 리스인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외환은행도 올해말까지 인도네시아에 15개 서브 지점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 해외네트워크 확장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국내은행의 해외진출을 위해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내은행의 지난해 해외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증가한데 비해 점포수는 외환위기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데 따른 대책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6억2100만 달러다. 이는 전년(4억5000만 달러) 대비 40% 증가한 수치다. 이들 은행은 현재 해외 36개국에 총 109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자산은 873억3400만 달러에 달한다.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전세계 금융업계가 저성장·저금리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시장 개척과 혁신을 위한 경쟁에 전념하고 있는 것에 반해 국내 금융업계는 우물 안 개구리가 돼 무기력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업계의 구조개혁과 해외시장 개척과 혁신을 위한 유도식 등 대책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은행업권의 블루오션은 해외 국제화"라면서도 "해외 진출은 리스크를 안아야 하기에 장기적인 안목이 없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채이순기자 silver@metroseoul.co.kr

아파트 관리 모든 것 '앱'으로 다스린다

건설사 스마트홈 구현 총력

건설사들이 빠르게 발전하는 IT기술을 아파트에 반영하면서 스마트홈 구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세대 내 USB 타입의 충전기구를 설치, 각종 IT기기들을 별도의 충전기 없이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제 예고 수준이다. 최근 선보이는 스마트홈 기술은 에너지 절감, 가스 조명 제어, 방범 예방 등을 언제 어디서든 손가락 하나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게 특징이다.

현대건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HAS.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원한 내부의 에너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HAS(Hillstate Smartphone Application System)를 개발했다.

오는 4월 분양 예정인 창원 감계지구 '힐스테이트2차'와 서울 은평구 '힐스테이트 백련산4차'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 앱을 다운받으면 세대 내 에너지 사용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사용량이 많을 경우 입주민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에너지를 아끼는 효과가 기대된다.

대림산업도 지난달 스마트홈 애플리케이션 대쉬(DASH Daelim Application for Smart Home)를 만들었다. 대시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을 통해 외부에서도 가스·조명·난방을 제어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는 등 월패드의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또 기존에는 월패드의 녹화 영상을 통해서만 방문객 확인이 가능했다. 하지만 대쉬를 실행해 실시간으로 방문객과 대화를 하고, 집에 비어 있는 사이 누가 다녀갔는지 부재중 방문자를 확인하는 게 가능해졌다. 대림산업은 용인 'e편한세상 수지'에 대쉬를 처음으로 적용했다.

포스코건설은 화재가 났을 때 세대 내 설치된 월패드와 스마트폰을 통해 비상경보가 울리도록 한 공동주택 소방안전 시스템을 개발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많이 입주민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화재안전 가이드'를 탑재한 게 특징이다.

이 외에도 삼성물산은 블루투스 기술이 도입된 홈네트워크 시스템인 '스마트 네트워크 하스(Smart Network HAS)'를 선보였다. 또 스마트폰에 뜨는 화면을 TV나 태블릿PC 등 다른 영상기기로 동시에 볼 수 있게 하는 미러링(Mirroring)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미러링 주방 TV'를 공급하기도 했다.

/박선옥기자 osol328@

글로벌 분산투자… 리스크↓ 분배금 꼬박꼬박… 수익성↑

한투證 '슈로더 월지급 글로벌멀티에셋인컴펀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2일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금리가 기존 2%에서 1.75%로 내려가며 사상 처음으로 1% 시대에 진입했다.

은행 예금금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에서 벗어난지 오래지만 실질적으로 금리가 1%대에 진입하자 많은 투자자들은 난감해하고 있다.

또 기대수명 증가로 은퇴 후 생활기간이 길어지고 급여 형태의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없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투자 대상이나 상품은 매우 필요하다.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저금리 기조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고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처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

한국투자증권은 '3低1高시대(저성장 저금리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는 투자 상품으로 '슈로더 월지급글로벌멀티에셋인컴(재혼-재)'을 추천하고 있다.

월지급식 펀드란 펀드의 기대수익률을 감안해 운용사가 정한 분배금을 매월 또는 일정 주기로 지급하는 펀드다. 이자, 배당 등 안정적 수익을 주된 재원으로 월지급금을 주며 낮은 시중금리 대비 높은 분배율을 가진다. 매월 펀드를 환매할 필요 없이 정해진 날에 분배금 자동 입금이 되며 해외채권, 글로벌인컴, 배당주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슈로더 월지급 글로벌멀티에셋인컴(재혼-재)의 투자 매력을 살펴보면 저금리, 저성장 환경 하에서 글로벌 전 지역에 걸친 분산투자를 통해 연컴 수익(고배당주 배당수익 및 하이일드채권/투자등급채권 등의 이자수익, 대연지신을 통한 인컴수익) 추구가 가능하다. 또 자산별 유연한 투자비중 조절과 변동성 위험관리를 통해 연 5~7% 수준의 장기 안정적 수익을 추구한다. 특정 벤치마크에 구애 받지 않는 운용방식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며 배당+이자의 인컴 수익을 주된 원천으로 매월 안정적인 월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펀드는 지난 2013년 3월 설정 이후 누적수익률은 9.1%를 기록 중이다. 클래스 A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1.0%이고 총보수는 연 0.81%(판매 0.70%, 운용 0.05%, 신탁 0.06%)에다. 환매수수료는 3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90일 미만 환매 시 이익금의 30%이다.

한국투자증권 상품전략본부 문성필 본부장은 "고령인구 증가와 수명 연장으로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은 점점 '적립'에서 '인출'로 확장되고 있다"며 "월지급식 상품을 통해 시중금리+알파의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기회를 만나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상품은 한국투자증권 전 영업점과 온라인채널에서 가입 가능하다.

한잔의 부드러움에
봄을 깨어난다

처음처럼
부드러운 17.5도

HAPPY WATER
100% 천연알칼리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증권가 맞춤 서비스로 고객몰이 시동

상담인력 확충… 야간 콜센터 운영 증권계좌 해킹 피해보상 서비스도

코스닥을 중심으로 주식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주요 증권사들이 다양한 고객 맞춤 서비스를 선보이며 고객몰이에 나서고 있다.

야간 프라이빗뱅커(PB) 상담·증권계좌 안심보장 등 부가서비스를 잇따라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 고객지원센터는 3월부터 PB 상담인력을 두 배로 늘리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7월부터 수수료 체계 개선과 함께 야간콜센터를 설치하는 등 고객지원센터의 체질을 바꾸는 작업을 실시했다.

고객지원센터는 15명에 불과한 전문상담인력을 지난달에 30명으로 늘렸다.

그간 고객지원센터는 주문 체결 등 단순 민원 업무만 담당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콜센터 개편과 동시에 투자 전문 상담 인력을 보강하면서 자금의 전용을 갖추게 됐다. 현재 고객지원센터에는 일반 상담 인력 60명, 투자 상담 인력 30명 등 총 90명이 근무하고 있다.

야간 콜센터 운영도 눈에 띈다. 지난해 10월 콜센터 운영시간을 종전 저녁 7시에서 10시까지 확대했다. 맞벌이 부부, 직장인 등 주간 투자 상담을 받기 어려웠던 고객의 수요를 읽었기 때문이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고객이 본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자유롭고 편안하게 금융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야간 PB 상담서비스를 도입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콜센터 운영시간을 늘려 고객들이 24시간 편안한 서비스를 받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코스닥 지수가 6년 8개월 만에 650선을 돌파한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여직원들이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NH투자증권은 올 들어 증권계좌 안심보장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증권계좌 안심보장 서비스'란 피싱, 해킹 등의 금융사기로 인해 NH투자증권 계좌에서 부당 인출되거나 증권카드가 부당 사용 되는 등 고객이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 300만원 한도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NH투자증권과 NH손해보험이 손잡고 도입했다. 노인 첫날인 지난 1월 2일 하루에만 1000명 이상의 고객이 신청했다. 지난달 25일 기준 가입자수가 1만명을 돌파했다.

별도의 가입비용 없이 NH투자증권 계좌만 보유하면 선착순 3만명에 한해 홈페이지(www.nhwm.com)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mug Smart)에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제공 기간은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1년이다.

이밖에 삼성증권은 시장의 특이사항이나 돌발사항이 발생했을 때 고객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신속대응팀을 마련했다.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주가를 비롯해 채권 신용등급과 환율·주가연계증권(ELS) 기초자산의 변동 등 40여가지 조건에서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본사의 신속대응팀이 즉시 상황을 파악해 고객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금감원 Q&A] 보이스피싱' 사기, 구제방법은?

1. 112·은행 콜센터에 신고
2. 피해계좌 지급정지 요청
3. 피해환급금 반환 신청

Q. 검찰 직원이라고 하면서 금융정보가 유출됐으니 안전하게 예금을 특정계좌로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고 돈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송금 후 사기인 것 같아 112에 바로 신고했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정부나 공공기관(금감원, 검찰, 경찰 등)의 직원이라고 하면서 개인 금융정보 유출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유로 "예금을 찾아서 가져와라"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두라", "특정계좌로 송금하라"고 한다면, 이는 100% 보이스피싱 사기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112 또는 거래금융회사의 콜센터를 통해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지급정지 조치로 인출되지 않고 사기이용 계좌에 남은 피해금은 거래은행 등에 피해환급금 반환 신청을 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며 지급정지 조치가 빠를수록 환급 가능성이 더 크므로 신속한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금융회사는 금감원에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공고를 요청하고 금감원은 2개월의 기간을 두어 소멸공고를 합니다. 이의제기가 없을 시 이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정산해 금융회사에 통지함에 따라 금융회사가 피해환급금을 피해자 계좌에 입금하게 됩니다.

지난 11월 치러진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관련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온 피싱 문자. /연합뉴스

/정리=김민지기자

생보재단 "3050 직장인들 함께 걸어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하 생보재단)은 28일 서울 남산공원 백범광장에서 건강나눔 도심건기 프로젝트 발대식을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행사는 30~50대 직장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걷기 운동과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관련 프로젝트다. 이날 참가자들이 백범광장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해외서도 'K-모션'으로 결제하세요

KB국민카드, 내달 1일 마스타카드와 업무협약

KB국민카드는 다음달 1일 마스타카드와 글로벌 핀테크 결제 관련 업무 협약을 맺고 오는 3분기 중 해외에서도 자사 모바일 앱카드 'K모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국민카드는 마스타카드가 보유한 해외 오프라인 가맹점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국제브랜드 카드사의 기술 표준과 호환이 안 돼 해외 가맹점에서 이용이 제한됐다.

K-모션은 전 세계 마스타카드 가맹점 중 근거리무선통신(NFC) 단말기가 설치된 300만여개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마스타카드 전자지갑인 '마스타패스'가 적용된 8만5000여개 온라인 가맹점에서도 이용가능하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앞으로 고객들이 해외에서도 모바일 앱카드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결제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채원기자

갤럭시 S6·G4, 출고가 눈치전

삼성·LG 내달 출시 흥행몰이 관건 '가격'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내달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선점 경쟁에 돌입한다.

삼성전자가 내달 10일 갤럭시S6를 LG전자는 4월말 G4를 출시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사활을 걸고 제작한 프리미엄 스마트폰 라인업의 자존심을 걸고 전장에 뛰어드는 셈이다.

갤럭시S6는 현재 예약판매에 돌입한 상태며 4월 10일 정식 출시된다. G4는 스마트워치 워치 어베인 LTE에 이어 흥행을 이어간다는 목표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정면 대결을 피해왔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삼성전자가 신제품을 출시하면 LG전자는 간격을 두고 신제품을 선보였다. 실제 지난해 삼성전자는 3월 갤럭시S5를, LG전자는 5월 G3를 출시했다.

삼성전자 모델이 지난 26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 마련된 쇼룸에서 '갤럭시 S6'와 '갤럭시 S6 엣지' 사전 체험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G3를 히트시키며 프리미엄 시장에서 경쟁력을 검증받은 LG전자가 G4에 자신감을 보이며 갤럭시S6와 정면승부를 택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6의 혁신적인 디자인을 전면에 걸고 무선충전 기술과 삼성페이를 핵심 기술로 내세웠다. 여기에 갤럭시S6 엣지의 측면 디스플레이 기술을 앞세워 흥행몰이에 나선다.

증권업계에서는 갤럭시S6의 글로벌 판매량이 6000만대에 달할 것이라는 핑크 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국에서의 판매량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서는 LG전자는 G4의 경쟁력으로 갤럭시S6의 아성을 넘겠다는 의지다. 전작인 G3는 단일기종으로 유일하게 해외 1000만대 판매를 기록한 만큼 G4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같은달 출시를 결정한 것은 '해볼만 하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승혁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갤럭시S6에 대한 높은 관심 등 경쟁심화에도 G4의 올해 판매대수는 G3보다 15% 늘어난 920만대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제품 출고가가 흥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이후 소비자들이 출고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삼성전자는 갤럭시S6 공식 출고가 공개를 꺼리고 있다. 이통사와 일부 매장에서는 갤럭시S6의 출고가를 85만원 선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갤럭시S6의 가격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측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다"며 "갤럭시S6의 출고가격 공개는 예약판매가 시작되는 다음달 1일 공개될 것"이라고 말을 아끼고 있다.

LG전자 관계자 역시 "G4 스펙과 가격에 대해 언급하기 다소 이른감이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왼쪽이 LG전자의 G3 정품, 오른쪽이 모조품 제작자가 조립한 G3 복제품. 내부부품의 종류와 배치가 상이하게 다르다.

중국산 '짝퉁폰' 활개 삼성·LG, 감경 단속

삼성·LG전자가 중국산 모조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LG전자는 전략 스마트폰 G3의 중국산 모조품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삼성전자가 사활을 걸고 만든 갤럭시S6의 모조품까지 등장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국내서 제조·유통된 사태가 발생한데 이어 중국에서 또다시 모조품이 등장해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LG전자 G3의 모조품은 중국 유명 온라인 사이트 '타오바오(Taobao)'와 '바이두(Baidu)' 등에서 약 10만원에 팔리고 있다. 모조품 판매자들은 정품 추가 배터리와 제품 인증서도 제공된다고 버젓이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LG전자가 직접 자체 적발한 사례를 보면 이들 모조품은 대개 중국산 저가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메모리 배터리를 장착한 것들이었다.

LG전자는 고유의 브랜드 가술 디자인 관련 지적재산권을 고의로 침해한 사례에 대해서는 중국 사법당국과 공조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G3의 불법 모조품이 늘어난 원인에 대해 LG전자는 이 제품이 올해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최고 스마트폰 상을 받고 중국 상하이가전박람회에서도 '대중인기상'을 수상하는 등 인기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내 중소가전, 베트남 공략 길 열렸다

한·베트남 FTA 가서명

쿠쿠전자와 대유위니아, 리홈쿠첸 등 국내 중소기업들이 베트남 가전 시장 공략을 본격화 한다.

한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FTA)이라 불리며 작년 말 협상을 타결지은 한·베트남 FTA에 대한 가서명이 완료됐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정식 서명 절차를 마무리 짓고 조속한 국회 비준을 받기로 해 연내에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에서 한·베트남 FTA 양측 수석대표인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부이 휘 손(Bui Huy Son) 베트남 무역진흥청장이 한·베트남 FTA에 가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산업부는 협정의 영문 가서명본을 30일 산업부 FTA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한글본은 영문본 공개 후 검독 등 절차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공개할 방침이다.

생활가전 품목을 시작으로 믹서, VCR, 보온밥통, 전시밥솥, 냉장고, 에어컨 등의 관세를 5~10년 사이에 단계적으로 철폐할 예정이다.

베트남이 인구 9000만을 지닌 신흥 시장으로 급부상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전제품의 무관세화는 국내 기업에 희소식이다. 가전 20~30%에 육박했던 관세율이 사라진다.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하면 시장 선점은 시간문제다.

양국은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완료하고 조속한 국회 비준 등의 에 다서기로 했다. 따라서 이르면 연내에 FTA를 발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오른쪽과 부 휘 손 베트남 무역진흥청장이 26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많이 수입되는 새우는 저율 관세할당으로 묶어 초기에 1만t, 이후 5년에 걸쳐 1만5000t까지만 낮은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송정훈기자 sjh@

삼성전자 "초고화질 TV 감상하세요"

삼성전자가 27일부터 수도권 백화점에서 삼성 SUHD TV 로드쇼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을 찾은 고객들이 SUHD TV를 감상하고 있다.

LG "싱글족 잡아라" '꼬망스' 업그레이드

LG전자가 1인 가구 소비자를 위한 미니 드럼세탁기 '꼬망스'(사진)를 29일 출시했다. 2013년 상반기 선보인 미니 드럼 꼬망스의 후속작이다.

신제품은 란제리 던 속옷 아기옷, 스피드, 표준 삶음 등 기존 8가지 기능에 울 섬세 와이셔츠, 수건 등 3개 코스를 더했다.

맞춤 세탁 다운로드 코스도 추가했다. 모바일 기기를 NFC 태그 존에 갖다대면 기능성 의류, 블라우스, 청바지 등 9가지 코스를 추가할 수 있다. 기본 11가지부터 최대 20가지까지 코스를 늘려 사용할 수 있다.

물 온도 표시를 냉수, 40℃, 60℃, 95℃ 4가지로 표시해준다. 기존 냉수, 온수, 삶음에서 하다 더 늘렸다.

전기 절약 효과도 높다. 3.5kg의 세탁물을 표준세탁하면 기존 드럼세탁기보다 전기 사용량을 최대 63%까지 줄인다.

표준삶음 코스를 선택하면 95℃ 뜨거운 물로 대장균과 포도상구균을 99.9% 이상 살균할 수 있다.

/양성운기자

LG디스플레이

'그린 팀' 조직 구성 온실가스 감축 앞장

LG디스플레이(대표이사 한상범)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오종극 한강유역환경청장 일행이 28일 LG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을 방문했다고 29일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파주와 구미에 각각 그린 팀 조직을 구성,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성운기자

SK텔레콤은 야외 활동이 많은 고객 대상 웨어러블 기기 맞춤형 상품 'T아웃도어'가 출시 5개월만에 가입자 10만명을 돌파했다고 29일 밝혔다. /SK텔레콤 제공

T아웃도어 5개월 만에 '10만명'

SKT 데이터무제한 등 고객맞춤형 상품 적중

SK텔레콤은 야외 활동이 많은 고객 대상 웨어러블 기기 맞춤형 상품 'T아웃도어'가 출시 5개월만에 가입자 10만명을 돌파했다고 29일 밝혔다.

SK텔레콤이 작년 11월 출시한 'T아웃도어'는 통신모듈이 탑재된 웨어러블 기기 전용 요금제·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상품이다. 'T아웃도어'를 활용하면 가벼운 외출이나 운동 시 스마트폰을 휴대하지 않아도 웨어러블 기기만으로 음성·문자·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T아웃도어'의 가장 큰 특징은 '데이터 무제한'을 제공하는 전용 요금제이다. 음악 스트리밍, 피트니스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서비스를 데이터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SK텔레콤 스마트폰 보유 고객이 동일명의로 'T아웃도어'를 가입하는 경우 'T아웃도어'의 음성 제공량을 다 소진하더라도 스마트폰의 음성 기본 제공량을 함께 쓸 수 있다. 또 월 3000원 상당의 착신 전환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동일명의의 스마트폰이 없더라도 단독으로 'T아웃도어'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웨어러블 기기에서 타 회선으로의 착신 전환(월 1500원)이 무료로 제공된다.

SK텔레콤 임봉호 상품마케팅본부장은 "'T아웃도어'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세분화된 고객의 니즈를 섬세하게 분석해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SK텔레콤은 다양한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상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지하기자

SKT 영업정지 시기촉각 갤럭시S6 비껴가나

방통위, 정례간담회서 집행시점 논의

SK텔레콤이 올해 초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7일간의 단독 영업정지와 235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가운데, 이제 업계의 관심은 방통위가 영업정지 시기를 언제로 정할지에 쏠리고 있다.

4월 10일 글로벌 시장에 동시 출시되는 삼성전자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사진) 흥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의 신규 모집 금지기간이 갤럭시S6 출시기간과 맞물릴 경우 국내 성공을 노리는 삼성전자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30일 열리는 정례 간담회에서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 적용 시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6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해 단말기 지원금을 과다 지급한 SK텔레콤에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유통점에는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다만 영업정지 집행시기는 시장이 침체돼 있는 점과 SK텔레콤이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 삼성전자의 갤럭시S6 출시 등을 감안해 추후 결정을 미뤘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기기변경은 가능하지만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은 금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책임지고 있는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징계처분은 삼성전자 입장에서 반갑지 않은 소식"이라며 "방통위가 갤럭시S6 출시를 앞두고 영업정지 시기를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삼성전자 디지털프라자는 물론 이동통신사 매장, 하이마트 등 전국 1400여개 매장에서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 체험공간을 마련하는 등 대대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갤럭시S6에 거는 자신감과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올해 첫 전략 제품으로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재기를 이끌 제품인 만큼 이번 갤럭시S6에 삼성전자의 모든 기술력과 역량을 쏟아부으며 사활을 걸었다.

통신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신규모집 금지를 곧바로 적용할 경우 시장은 물론 삼성전자의 갤럭시S6 국내 판매량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SK텔레콤 영업정지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일단 결과를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이재영기자 hoyeyy@metroseoul.co.kr

U+tv G "10개 구단이니깐 5채널"

동시시청서비스 확대

LG유플러스는 2015 프로야구 참여 구단이 10개로 확대돼 하루에 5경기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기존 4채널 서비스에서 제공되던 동시 시청 화면 수를 4개에서 5개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야구팬들은 이달부터 프로야구 전 경기를 'U+tv G'의 동시시청 서비스를 통해 야구 경기를 시청하면서도 타 구장의 소식과 스타플레이어의 경기 모습을 놓치지 않고 즐길 수 있게 됐다. LG유플러스는 IPTV 시용자의 약 50% 이상이 매달 4채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프로야구 시즌에는 멀티뷰 서비스 이용률이 급증하는 등 고객들의 시청 니즈를 사전에 파악해 서비스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3년 '4채널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선보이며 새로운 TV 시청 경험을 제공했다. 또 2014년에는 동시에 시청하는 각 화면의 채널을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my4채널 서비스'를 출시해 동시시청 니즈가 높은 고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낸 바 있다.

LG유플러스 IPTV사업담당 박종욱 상무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패턴과 시장의 변화를 반영해 고객에게 차별된 IPTV 서비스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고객 친화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계속 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하기자

LG유플러스는 2015 프로야구 참여 구단이 10개로 확대되면서 기존 4채널 서비스에서 제공되던 동시 시청 화면 수를 4개에서 5개로 확대한다. /LG유플러스 제공

"두산 FM 200/5AX Good!"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선정

두산인프라코어는 자사 공작기계 FM 200/5AX 시리즈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15'에서 제품디자인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PUMA SMX 시리즈에 이어 2년 연속 본상이다. 사측에 따르면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iF 디자인상, IDEA 디자인상과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제품과 커뮤니케이션, 컨셉 등 3개 분야로 나눠 디자인, 창의성, 실용성, 친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FM 200/5AX는 현재 상용화된 공작기계 중 주축(스핀들) 회전수가 최고 수준인 초고속 5축 머시닝센터다.

육각형 곡면의 디자인 콘셉트를 반영한 제품이다. 외관으로 시각적인 안정감과 견고한 성능을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대한민국 '2014 굿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 바 있다.

두산인프라코어 측은 "최근 공작기계 디자인의 큰 콘셉트는 '강인함 속의 섬세함'으로 인간공학 디자인이 중요해지는 추세"라며 "이번 수상으로 두산 공작기계가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과 감성품질을 높인 제품이란 인식을 확실히 했다"고 전했다. /이현진기자 nomm@

공작기계 FM 200/5AX /두산인프라코어 제공

LG유플러스 호텔정보시스템 만든다

산하정보기술과 MOU

LG유플러스는 국내 호텔·리조트 솔루션 전문업체인 산하정보기술과 공동으로 기업용 스마트 IPTV 솔루션(U+Biz tvG)과 통합 고객관리 시스템을 결합한 호텔 정보시스템 개발 및 공동 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휴로 호텔 정보시스템이 구축된 전국의 호텔 및 리조트는 객실 내 설치된 IPTV를 통해 실시간 고화질 방송 콘텐츠 시청은 물론 입·퇴실과 호텔시설 정보, 각종 알림 메시지를 받아 볼 수 있다. IPTV 시청 중 룸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호텔 부대시설을 실시간으로 예약할 수 있다.

LG유플러스와 산하정보기술은 호텔 정보시스템을 향후 호텔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고 교통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외부 환경과도 연동되도록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지하기자

美 법인 비자금 300만 달러 도박 탕진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25년 만에 덜미
자녀 등 일가친척도 檢 수사 선상 올라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2)이 미국 현지법인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 수십억원으로 상습적인 도박을 벌이다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1990년 마카오 카지노에서 상습도박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던 장 회장은 25년 만에 또다시 해외 원정도박을 되풀이해 불명예를 안게 됐다.

29일 재계·법조계에 따르면 장 회장은 횡령한 회삿돈 수백억원 중 수십억원 상당을 미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 자금으로 충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이 미 법인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 중 약 200만~300만 달러를 해외 원정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 회장은 특급 카지노호텔인 벨라지오와 윈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해외 원정도박으로 50억원 상당의 추가수익을 올린 것과 관련, 횡령한 회삿돈으로 현지 지인들에게 명품 등 고가의 선물을 건넨 의혹도 받고 있다.

또 미 법인 외에 부동산업체 페럼인프라를 통해 동국제강 본사 사옥 건물관리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자금 조성을 통한 이득 대부분이 장 회장과 자녀 등 일가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는 검찰은 이들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미국·일본·홍콩 등 세계 각지에 해외법인을 두고 있는 동국제강은 이들 해외법인 계좌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사고 있다.

원자재 거래가 많은 철강업계 특성상 부외자금을 손쉽게 마련할 수 있는 수법이기 때문이다.

동국제강은 일본이나 러시아 등 해외에서 고철 등의 원자재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거래대금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백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과다계상한 대금의 차액은 미 법인인 동국인터내셔널(DKI)로 보낸 다음 일부를 손실처리하는 등의 수법으로 1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동국제강은 그룹 차원에서 DK유엔씨와 페럼인프라 등 장 회장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계열사 간 거래대금 부풀리기나 당진제철소 건설비 과다계상 등도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서울 을지로 동국제강 본사와 계열사, 장 회장의 서울 종로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출국금지된 장 회장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장 회장은 2004년에도 회사 예금을 일가친척들의 대출 담보로 사용하고 회삿돈으로 개인채무를 갚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유죄가 확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3년 뒤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았다.

1차 철강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국제강은 지난해 매출 6조685억원에 영업손실 204억원, 당기순손실 2925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전년 대비 매출은 9.3% 줄고 영업이익은 811억원에서 적자전환했으며 당기순손실은 147.0% 악화된 수치다.

/이청률기자 crlee@metroseoul.co.kr

회삿돈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이 동국제강 본사와 장세주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26일 새벽 서울 중구 동국제강 본사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뉴시스

대한항공, 고효율·친환경 항공기 띄운다

'A330-300' 내달 투입

대한항공이 성능이 우수한 친환경 고효율 항공기를 도입하면서 글로벌스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대한항공은 전날 중장거리 노선 주력 기종 중 하나인 에어버스 A330-300 신규 항공기 1대를 도입해 4월 2일부터 국제선 노선에 투입한다.

대한항공은 기존에 운항 중인 A330-300 항공기와 함께 이번 도입 항공기를 비즈니스·관광 수요가 많은 시드니, 브리즈번, 싱가포르 등 동남아와 대양주 중·장거리 노선에 투입할 계획이다.

사측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한 A330-300 기종은 총 272석 규모로 순항속도 870km/hr, 최대 운항거리 9450km, 최대 비행시간 약 11시간의 연료효율성이 높은 친환경 항공기다.

대한항공은 현재 18대의 A330-300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항공기를 포함해 올해 3대를 추가 도입해 연말까지 총 21대의 A330-300을 보유하게 된다.

대한항공은 올해 A330-300 3대, B747-8i 4대를 비롯해 B777-300ER 6대, B737-800 4대 등 17대의 여객기와 B747-8F, B777F 각각 1대씩 2대의 화물기 등 총 19대의 신형 항공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연할기자

현대중 노조, 조선사업장 발암물질 조사

자체예산 3000만원 투입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조선사업장 내 발암물질 자체조사에 나선다.

노조는 4월부터 자체예산 3000만원을 들여 조선 사업장 발암물질을 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

노조는 최근 산업안전대책을 위해 노사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전문기관을 선정해 도장부서를 중심으로 발암물질을 조사하자고 요구했다.

조사기관은 노조가 선정하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사협의 결과 노조가 자체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회사는 그동안 시행한 유해물질 조사결과를 노조에 제공한다.

또 노조의 조사에 대해 시료채취와 조사기관 출입 등을 협조할 예정이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의 산업안전 실무부서가 협의하기로 됐다.

노조는 도장부서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1명씩 암에 걸렸는데 직업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사업장 환경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조사에 나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발암 물질 조사는 금방 결과가 나올 수 없는 만큼 장시간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청률기자

아시아나항공, 필리핀 마을에 韓문화 전파

임직원 봉사활동 실시

아시아나항공(대표 김수천)이 글로벌 자매결연 마을인 필리핀 팜팡가에서 임직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아시아나 임직원 20명은 25~28일 필리핀 클락 인근 팜팡가주 카피스시 아이따족 원주민 마을을 찾아 주요 시설 보수와 위생물품 지원·사용방법 교육을 진행했다.

봉사활동과 함께 아이따족 아이들에게 한국어 인사, 동요, 태권도 등도 가르쳤다.

김석제 아시아나항공 사회공헌팀장은 "지금까지 생존에 필수적인 시설 구축에 중점을 두고 지원해왔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립기반이 갖춰졌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봉사는 아이따족 요청으로 태권도, 동요, 한국어 회화 등 교육을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고 아이들 정서함양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유소리기자 hisaund@

26일 아시아나항공 직원봉사단이 필리핀 아이따족 원주민 마을에서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다. /아시아나 제공

에어부산
상반기 캐빈승무원 공채

에어부산(대표 한태근)이 기내안전과 고객 서비스업무를 담당할 올해 상반기 캐빈승무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

공개채용은 30일부터 진행한다. 20여명의 인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원서 접수는 에어부산 채용사이트(recruit.airbusan.com)를 통해 4월 9일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합격자는 서류전형·1차 면접·인적성 검사와 체력테스트·2차 면접·건강검진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영어 외에 중국어 성적 우수자는 전형 시 우대한다.

에어부산은 2007년 설립 이래 현재까지 100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올해는 4월 부산-장자제, 부산-다낭, 7월 부산-괌 노선 취항을 위해 약 100명의 신규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이청률기자

담배 추가 세수 연 5조원 전망

정부 연간 부족 세수액 근접…판매 감소폭 1월 40%에서 3월 10~20%로

연초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 열풍으로 급감했던 담배 판매가 서서히 되살아나면서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걷는 추가 세수(稅收)가 연간 5조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예산 부족액 5조3000억원에 근접하는 액수를 담뱃값 인상을 통한 세수로 메울 수 있게 된 것이다.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 증진'보다 '세수 부족'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게 됐다.

지난해 담배 소비량은 약 43억4100만갑. 담배 가격에서 세금과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2%로 약 6조7286억원(43억4100만갑×2500원×62%)이었다.

올 들어 3월 담배 판매량 감소는 정부 당초 예상치 보다 낮은 20%수준. 이를 유지할 경우 담배로 인한 2015년 세수는 지난해 담배 판매량을 기준으로 했을때 11조7175억원(43억4100만갑×80%×4500원×73.7%)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A 편의점의 지난 1월 첫째 주 담배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3%나 줄었지만 2월 22.4%에 이어 3월 첫주 17.6%, 둘째 주 15.6%, 셋째 주 15.1% 등으로 감소 폭이 계속 줄고 있다.

B 편의점도 1월 첫 주 42.1%에 달했던 담배 판매량 감소폭이 2월 26.4%, 3월(~22일) 19.9%로 줄었다.

매주 담배 판매가 조금씩 되살아나면서 1월 첫째 주와 비교한 판매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B 편의점의 2월 첫째 주 판매량은 1월 첫째 주에 비해 28%, 3월 셋째 주에는 54%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담배 판매량이 줄었지만 담뱃값이 2000원 가량 오르면서 편의점의 담배 판매 금액은 크게 늘고 있다. B 편의점의 경우 담배 판매가 급격하게 줄었던 1월 첫째 주에는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5% 줄었지만 1월 넷째 주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3월 셋째 주 담배 매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4.2%나 늘었다. 올 들어 지난 22일까지 누적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2% 감소했지만, 판매 금액은 19.6% 늘었다.

편의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새해 금연 결심 때문에 1~2월에는 담배 판매가 줄다가 금연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면서 3월부터 판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담뱃값 인상과 작년 말 사재기의 영향으로 올 초 급감했던 담배 판매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담배 판매 감소가 20%대에 그치면 국민 세수 부담은 당초 예상의 배 가까운 5조원에 달하게 된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 소비량이 34% 줄고 세수는 2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국회예산처는 담배 소비량이 20% 줄고 세수는 5조456억원이 늘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담뱃값 인상 후 담배 판매가 급감했던 1~2월 두 달동안에도 약 1000억원의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더 걷혔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월과 2월(~23일) 담배에 부과된 세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106억2000만원 늘었다.

담배 가격에서 세금과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62%에서 올해 73.7%로 높아졌다. 올 1월1일부터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이 모두 인상되고 개별소비세 594원이 신설돼 세금과 부담금은 총 3318원으로 늘었다.

/채지은기자 sensy@metroseoul.co.kr

'영양 가득 시리얼로 좋은 하루 시작하세요' 농심 켈로그가 29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건강에 좋은 시리얼로 아침식사를 하자는 의미로 '좋은 하루의 시작' 캠페인을 시작하며 곡물이 풍부하게 담긴 시리얼과 시리얼을 재료로 만든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

한국산 채소 베트남서 통했다

롯데마트 버섯 완판

롯데마트(대표 김종인)가 지난 17일부터 국내 대형마트 최초로 베트남에 수출한 국산 버섯이 판매 시작 5일만에 완판됐다고 29일 밝혔다.

베트남으로 수출한 국산 버섯은 '한국버섯수출사업단'과 연계한 것으로 '팽이 버섯', '새송이 버섯', '느타리 버섯' 등 총 3종류, 2톤 가량을 선보였다.

지난해 11월 국내 대형마트 최초로 중국으로 참외 수출을 한 데 이어 올해 1월 베트남으로 참외를 수출해 행사 1주일 만에 준비한 10톤 물량이 모두 동나기도 했다.

롯데마트는 국산 버섯 추가 물량을 투입하는 한편 4월부터는 베트남 전점에서 국산 버섯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또 향후 반응이 좋은 품목을 중심으로 연간 500톤 가량의 다양한 국산 농산물을 베트남으로 수출하고, 인도네시아, 중국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류경우 롯데마트 대외협력부문장은 "베트남 현지에서 K-pop에 이은 '한국산 채소(K-vegetable)'열풍이 국산 농산물의 해외 판로 확대의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bora@

'온라인 가구' 소비자 피해 증가

소비자원 조사, 상당수 청약 철회·반품 제한

온라인 가구 구매가 활성화 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지만, 많은 사업자가 청약 철회 등 거부하거나 반품 시 과다한 비용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구매한 가구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1년 111건, 2012·2013년 각 143건, 지난해 22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접수한 227건을 피해 유형별로 보면 품질 불만이 110건(48.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송불만(15.9%), 광고와 실물 차이(12.3%), 청약철회 거절(11.5%), 사후 서비스 불만(5.7%) 순이었다.

품질 불만 중에는 파손·불균형·찌그러짐 등 형태 변형과 스크래치·도색불량 등 표면 불량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또 배송 불만은 배송 지연이나 오배송, 광고 불만은 제품 색상이나 디자인이 홈페이지 사진과 다른 경우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가구 4개 품목(소파·장롱·침대·책상/식탁)을 대상으로 국내 오픈마켓에 입점한 320개 가구업체의 거래조건을 조사해보니 85.4%가 청약 철회나 반품 등을 제한했다.

제한 사유는 '설치·개봉·조립 후 반품불가'(74.2%), '색상·재질·사이즈·원목 특성 때문에 반품불가'(27.6%), '설치 당일 혹은 상품 수령 시 확인된 하자만 반품 가능'(19.1%) 등이었다.

소비자가 원하는 가구를 샀는지 확인하려면 개봉·조립 절차가 필요하다. 또 가구 특성상 설치 당일 하자 발견도 사실상 어렵다.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계약상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면 반품 등이 가능해야 하는데도 이를 포괄적으로 제한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 대상 업체의 87.5%가 반품비가 있다고 표시했으나 그 금액까지 명확히 표시한 곳은 15.7%에 그쳤다. 정확한 반품비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판매자가 멋대로 반품비를 책정하는 등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청약철회나 반품 등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온라인 가구판매업체의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제품 반품비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유통업계, 야구팬 겨냥 마케팅 돌입

유니폼 증정·용품할인 등

프로야구 시즌이 개막하면서 유통업계의 야구 마케팅도 시작됐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다음 달 1일부터 롯데 자이언츠 구단 어린이 회원을 모집한다. 5~13세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가입비는 1인당 4만5000원이다. 가입 신청은 롯데마트 잠실·서울역·사상·광복·해운대점의 '도와드리겠습니다' 코너나 온라인쇼핑사이트 롯데마트몰(www.lottemart.com)에서 받는다. 어린이 회원에게는 야구모자(스냅백)·글러브·공·배트·야구공 등 7만8천원 상당의 야구용품과 시즌 동안 모든 구장에서의 롯데 자이언츠 경기를 자유석에서 무료 관람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

특히 다음 달 1일까지 온라인몰을 통해 가입한 경우 추첨을 통해 가족 유니폼, 선수 사인볼 등을 증정한다.

롯데마트는 아울러 다음 달 2~8일 모든 지점에서 야구용품을 최대 20% 할인 판매한다.

롯데백화점은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야구 마케팅에 나선다. 백화점 부산본점·광복점·동래점·센텀점·울산점, 아울렛 김해점·동부산점은 4~10월 한달에 한번 홈경기가 있는 화요일을 '롯데백화점의 날'로 정하고 사구행사와 임직원·고객 대규모 응원전 등을 준비한다. 지난해 롯데 자이언츠의 승률이 가장 낮은 요일이 화요일(35.3%)이었다. 롯데자이언츠 유니폼·연습복·배트 등을 판매하는 자이언츠샵은 상시매장인 광복점 뿐 아니라 비급 부산본점·센텀시티점·롯데몰 동부산점에서도 선보인다.

갤러리아 백화점은 그룹 계열의 한화이글스를 응원에 나선다. 갤러리아 명품관(서울 압구정)·센터시티(대전)·타임월드(한안)는 각 지점 페이스북을 통해 30일까지 '한화이글스의 새로운 감독은 누구인가'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지점별로 정답자 5명에게 한화이글스 소속 유명 선수들의 사인볼 등을 증정한다.

한화이글스의 연고지인 충청지역 소재 타임월드와 센터시티는 다음 달 2일까지 한화 선수들의 사인볼과 유니폼 등을 경품으로 준다. 하루 5만원이상 구매한 영수증에 한화이글스 응원메시지를 작성, 지점별 사은행사장(타임월드 3층, 센터시티 7층)에 제출하면 지점별로 9명씩을 추첨한다.

타임월드는 다음 달 초 '야구용품 팝업스토어'도 개장한다. 이 매장은 한화이글스를 포함한 국내 대표 4개 구단의 유니폼, 모자, 재킷 등 야구 관련 의류와 용품들을 판매한다.

/김보라기자 bora@

제31회 코오롱 구간 마라톤 성료…총 55개팀 참가

꿈꾸는 중·고등학생들이 참가하는 제31회 코오롱 구간 마라톤 대회가 지난 28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고교 26개 팀과 중학교 33개 팀, 총 59개 팀이 참가했다. 남자 고등부에서는 서울체고가 2시간18분23초에 들어와 정상에 올랐으며 여자 고등부에서는 김천한일여고가 2시간39분03초로 우승했다.

또 중등부에서는 경북체중(50분25초)과 선정여중(55분31초)이 남녀부 우승을 차지했다.

/유수정기자 kal0215@

2015년 1차 벤처기업 공동채용

대한민국 우수벤처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열정적인 인재를 모집합니다

◈ 벤처기업 공동채용이란?

공동채용 참여기업 수준

신입사원 기준 연봉 2,200만원 이상의 정규직을 채용하고자하는 기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벤처기업

지원방법

벤처전문취업포털 브이잡(www.v-job.or.kr)
공동채용관에서 기업별 세부 모집요강 파악 후 지원

지원자격

대학졸업(예정자) 및 특성화고 졸업자(예정자)를 포함한 미취업자

모집일정

2015.03.25(수)~2015.04.03(금)

채용절차

문의처

벤처기업협회 인재지원팀 02)6331-7051~7054
E-mail : job@v-job.or.kr

- 1차 벤처기업 공동채용 주요 참여기업 -

▶ 선도벤처기업관 ◀

MDS테크놀로지㈜	㈜에프에스티	㈜엔텔스	㈜슈프리마	디에스글로벌㈜
㈜엔에스엠	㈜메타네트웍스	엔쓰리엔㈜	㈜네오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	㈜아이템베이
㈜에이치케이씨	㈜와이즈아이티	㈜아릭	㈜디케이아이테크놀로지	인우시스템㈜

▶ 우수성장기업관 ◀

㈜퓨쳐시스템	아이스파이프㈜	㈜젠피아	㈜에스엠케이	㈜제이디솔루션
㈜자마트씨디칼	㈜지엠홀딩스	㈜대니엔코스앤컴퍼니	㈜유플러스시스템	㈜케이스마텍
㈜씨큐엔비	로버무트㈜	㈜에코에너지기술연구소	㈜다나무	㈜소프트자이온

▶ 연봉우수기업관 ◀

㈜일성에프에이	㈜씨에이에스	㈜에듀하우스	고려오트론㈜	㈜휴머스온
씨트론㈜	㈜아이지	㈜삼호무역	㈜위즈네트	㈜열린기술
㈜인터전기	㈜크루메이트	㈜비티에스이엔지	㈜픽소니어	㈜플러스는기술연구소

중소기업청　　KOVA (사)벤처기업협회

LF, '버켄스탁' 국내 전개

LF(대표 구본걸)는 독일 캐주얼 신발 브랜드 '버켄스탁'을 국내 시장에서 본격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7일 LF 본사에서 LF 오규식 사장과 독일 버켄스탁 올리버 라이히어트 CEO가 참석한 가운데 버켄스탁 국내 수입 및 영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버켄스탁은 1774년 독일 신발 장인 요한 아담 버켄스탁으로부터 유래돼 200년이 넘는 역사가 있는 신발 브랜드다. 특유의 아치형 밑창과 코르크 제조공법을 개발하는 등 혁신적인 기술을 겸비하면서도 브랜드 고유의 헤리티지와 장인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LF는 상반기 중 단독 매장으로 주요 백화점에 입점하고 가두 플래그십스토어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 편집숍 '라움 에디션'과 '라움 에디션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등 다양한 유통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다.

버켄스탁의 주력 아이템인 여름 샌달을 비롯해 컴포트 슈즈, 워크 슈즈, 부츠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 /김수정기자

이화의료원, 식약처장 표창 수상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료원장 이순남)이 최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사)한국참조경영인협회 신참조인 인증 및 시례발표 대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백남선 이대여성암병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산악인 엄홍길, 신태용 ○○구을심목대표팀 감독 등과 함께 제1호 '신참조인'에 선정됐다.

르네상스 서울 호텔 '원데이 패키지'

르네상스 서울 호텔은 '원데이 패키지'를 5월 31일까지 선보인다.

모든 스프링 주말 패키지에는 기본 공통혜택인 유리돔을 통해 바지는 차연광을 즐길 수 있는 실내 수영장, 르네상스 레크리에이션 센터 무료 이용 과 사우나 50%를 포함해 다양한 고객층을 배려한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

'원 싸인데이 패키지'는 디럭스룸 1박과 기본 공통혜택을 포함, 18만원부터(10% 봉사료 및 10% 세금 별도) 제공된다.

'원 스위트데이 패키지'는 기본 공통혜택과 더불어 디럭스룸 1박, 카페 델리제 2인 조식, 창경궁 성인 2인 티켓 및 무료 셔틀버스 서비스, 객실 내 무료 인터넷을 포함해 23만원부터다. 또 온 가족을 위한 '원 뷰티플데이 패키지'는 25만원부터 제공된다.

산들건강, 봄 맞이 '변석훈옥고' 할인

변한의원과 제휴를 맺은 산들건강(www.sandle.co.kr)이 봄 맞이 세일을 진행한다.

변석훈옥고를 11% 할인해주고 안토시니안이 풍부한 아로니아 분말 100g 한 병을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특히 변석훈옥고는 고종황제 어의를 지냈던 변석훈 옹이 고종황제께 진상했던 약재다. 현재 변석훈 옹의 5대손인 변기원 변한의원 원장이 전통적인 방식을 그대로 살리면서 약효를 개선했다. 원기를 보충해 주는 효과가 탁월하다고 알려진 경옥고를 변한의원에서는 '변석훈옥고'라 부른다.

문의 02-778-4544

aT, 할랄데스크·차이나카페 마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는 aT센터 내 운영 중인 비즈니스라운지에 할랄데스크·차이나카페를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국·이슬람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식품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할랄데스크와 차이나카페를 도입해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정보 접근성이 낮은 지역 소재 식품기업을 포함한 농식품 수출기업과 유관기관은 누구나 해외시장 개척·확대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웃도어 "2030세대 잡아라"

젊은층 겨냥 소통 마케팅
패션접목 개성·감성 중시

최근 아웃도어 업계가 젊은층을 사로잡기 위한 마케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아웃도어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새로운 고객층인 20~30대를 흡수하기 위한 전략이다.

엠리밋은 디자인그룹 '스티키몬스터랩'과 협업한 '캐릭터 라인'을 출시했다. 캐릭터 라인은 기능성과 패션을 접목해 개성과 감성을 중시하는 젊은층의 욕구를 반영했다. 특히 스티키몬스터랩이 특별 제작한 캐릭터 몽블리가 제품에 전면 활용됐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이 전개하는 살로몬도 가방 브랜드 바잉헤브랜드와 손잡고 '에빈 트래블링 컬렉션'을 출시했다. 서포터즈나 홍보대사 등을 활용해 젊은 세대와 소통을 늘리고 있다.

아이더는 최근 '아이더 프렌즈' 10기를 모집했다. 서포터즈 활동은 물론 해외 미션 기회까지 주어진다.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에 도전하는 '아이더 챌린저'와 아이더 행사 및 아이더 챌린저의 활동을 취재하고 영상을 제작하는 '아이더 리포터'로 구성됐다.

체험형 마케팅도 활발하다. 머렐은 정통 하이킹화 '카프라' 전세계 동시 출시를 기념해 내달 19일까지 이벤트를 연다. 카프라 글로벌 영상을 본 후 영상 URL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에 공유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100만원 상당의 바나투어 트래킹 상품권 등을 제공한다.

업계 관계자는 "4050세대만을 위한 아웃도어로는 더 이상 살아남기 힘들다"며 "2030세대는 미래에 주 고객이 될 잠재고객이기에 이들을 사로잡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은 앞으로도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0215@metroseoul.co.kr

"색상 보면 샴푸 기능 보인다"

샴푸업계, 컬러마케팅 활발

최근 생활용품 업계가 샴푸 패키지에 다양한 색상을 적용하고 있다. 색상이 주는 이미지가 샴푸의 콘셉트나 기능 전달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아래 업계에서는 이를 반영한 컬러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손상된 머릿결 케어에 집중하는 극손상 데미지 샴푸의 경우 대체적으로 옐로우나 오렌지 등 밝은 톤의 패키지가 주를 이룬다. 밝은 톤이 가지는 활기 넘치고 쾌활한 분위기가 소비자에게 치유의 느낌까지 연상시켜 집중 영양 케어 등의 기능적인 측면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이다.

애경 케라시스 살롱케어 극손상 앰플 클리닉 샴푸는 손상모 맞춤 샴푸로 빛을 가장 많이 반사하는 옐로우톤이 메인 색상이고 미장센 퍼펙트 ○○라스틴 데미지케어 등도 주목도 높은 밝은 색상의 패키지를 사용하고 있다.

머릿결의 여성스러움을 한층 부가하는 볼륨, 탄력 등의 기능을 가진 제품은 대체로 중성적인 느낌을 주는 바이올렛 톤의 패키지가 많다. 우아한 여성의 이미지를 바이올렛 톤의 패키지 컬러로 완성시키는 것이다.

두피케어 샴푸는 깨끗하고 상쾌한 느낌을 뚜렷하게 전달하는 그린과 블루톤을 주로 사용한다. 과도한 피지 등으로 두피의 답답함을 느끼는 소비자의 특징을 파악해 편안함과 심리적 해소감을 주는 그린, 블루톤의 컬러를 사용한 것이다. 애경 케라시스 두피스케일링 샴푸 외에도 미장센 스칼프 케어 샴푸, 엘라스틴 윤습샴푸 등이 자연과 가까운 톤의 색상으로 건강한 인상을 준다.

애경 관계자는 "샴푸는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저관여 제품인 만큼 소비자들이 제품의 문안을 꼼꼼히 읽기보다는 직관적으로 제품을 선택하는 구매패턴을 보인다"며 "제품의 기능적인 부분이나 콘셉트를 어필해 소비자의 구매를 이끌어내는데 패키지 디자인이나 컬러의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구강점막 에이즈검사, 자가검사 시대 열려

HIV 검사키트, 판매 승인

약국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간편하게 검사키트를 구입해 집에서 에이즈(AIDS) 검사를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에만 공급되던 구강점막을 통한 HIV검사 키트가 지난해 11월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온라인이나 약국에서도 판매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구강점막삼출액은 치은조직에서 유출돼 나온 액으로 다량의 IgG(Immunoglobulin G)를 함유하고 있어 구강점막삼출액으로 HIV 검사가 가능하다. 구강점막 HIV 검사 제품은 '오라퀵'이 유일한 제품으로 2004년 구강점막을 통한 검사방법으로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다. 이 제품은 국내외의 많은 연구논문을 통해 그 정확도가 입증됐다. 현장검사 제품으로 검사실 밖에서 검사를 해도 검사실에서 검사하는 것과 동일한 정확도와 결과를 보여줘 미국 FDA로부터 CLIA 면제 제품으로 인정 받았다.

'CMC 모터스' 역삼본점 이어 강남점 오픈

車 외형복원부터 전문 손세차까지… 클래식카 '로버미니' 전시

차별화된 자동차 내·외장 관련 서비스 전문업체 CMC 모터스가 서울 강남역 국기원 사거리 인근에 2호점을 새로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CMC 모터스는 광택, 코팅, 덴트, 판금·도장 등 자동차 외형복원 관리와 전문적인 손세차까지 한 곳에서 논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고품격 멀티 오토 케어 숍이다.

이번에 문을 연 강남점(역삼동 830-2번지)은 역삼본점에 이어 젊은 고객들의 감성을 사로잡기 위해 커피숍을 연상케 할 정도로 매장 분위기를 우아하게 연출했다. 매장 분위기를 우선시하는 젊은층을 사로잡겠다는 계획이다.

역삼점은 자동차를 사랑하는 모티브를 기본으로 자동차 관련 인테리어 소품과 모형자동차는 덤으로 제공되는 볼거리 중의 하나로 인기를 끌어왔다. 역삼점 자동차모형 전시장에서만 접할 수 있던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의 슈퍼카와 바이크 모형들이 2층 고객대기실 맞은편에 자리잡고 있어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다.

90여평 규모의 강남점은 ▲실내 손세차 공간 ▲광택·코팅·덴트 공간 ▲방문 고객을 위한 세련된 휴식 라운지와 야외 테라스까지 마련돼 있다.

건물은 테라스형 구조로 매장 내부 디자인은 모던빈티지 콘셉트로 세련된 분위기를 강조했다. 외부는 젊은이들로 붐비는 강남역 인근의 특성을 살려 테라스를 오픈했다. 야외 테이블을 배치해 방문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와 휴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역 국기원 사거리 부근에 있는 CMC 모터스 강남점 전경

특히 2층 테라스 공간에는 클래식카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고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1998년식 '로버 미니'를 전시해 고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로버 미니는 지난해 SK엔카에서 개최한 40여대의 '클래식엔카 페스티벌 전시'에서 최고의 클래식카로 선정된 바 있다.

최우진 CMC 모터스 공동대표는 "최근의 자동차 관리 문화는 빠르게 변화하고 진화 중이다"며 "역삼본점의 서비스 정신을 이어받아 업그레이드 된 프리미엄 오토 케어전문점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세차 종류는 기본과 프리미엄 두가지로 나뉜다. 프리미엄 손세차는 100% 수돗물 고압세차를 기본으로 타르제거, 왁싱, 실내 탈취, 엔진룸 청소, 유막제거 등 고객의 취향과 선택에 따라 서비스되며 약 1시간 가량 소요된다. 기본세차는 20분이면 마무리된다. 영업시간은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문의전화 070-4212-7981.

한편, CMC 모터스는 지난해 2월 자동차를 사랑하는 젊은 직원들의 열정과 섬세한 기술력,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 정신을 기반으로 역삼점을 오픈해 일대 고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김태호기자 fun@metroseoul.co.kr

현대차, '투싼 디자인 포럼' 연다

현대자동차는 4월 11일 서울모터쇼가 진행되는 일산 킨텍스 2전시장에서 투싼 디자인 포럼을 개최한다.

사측에 따르면 '글로벌 자동차 디자인 조류와 투싼의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이번 포럼은 국내외 디자인 전문가의 강연과 간담회를 통해 글로벌 자동차 디자인의 흐름과 현대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디자인 특징을 짚어본다.

포럼에는 ▲보더시티 유럽 디자인 컨설턴트 데이비드 힐튼 ▲볼보 디자인 매니저 데이안 호스트 ▲영국 카디자인 리서치 대표 샘 리빙스턴 ▲가렙 대표 예릭 노블 그리고 ▲내국 아트디자인스쿨 은송디자인학과 임범석 교수 등 국내외 디자인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한다.

현대차는 ▲디자인 관련 학과 대학생 및 교수 ▲디자인 업계 종사자 ▲자동차 관련 언론인 등 총 200여명을 초청한다.

참가를 원하는 고객은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현대차 홈페이지(www.hyundai.com)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결과는 4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정용철기자

AJ렌터카, 신임 대표에 윤규선 사장

AJ렌터카는 윤규선(53) 전 AJ토탈 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임 윤 대표는 1996년 아주그룹 신규사업팀 팀장으로 입사한 뒤 아주캐피탈 상무이사, AJ토탈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AJ그룹이 아주그룹에서 계열분리 할 당시 기획조정실장으로 활동했다.

16년간 아주그룹과 AJ그룹에서 근무하며 그룹사 경영전반에 걸쳐 관여해 전문경영인으로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게 사측 설명이다.

AJ렌터카는 윤 대표 체제 아래 자회사인 AJ셀카와 중고차사업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2009년부터 AJ렌터카를 이끌었던 반채운 전 대표이사는 계열사인 AJ네트웍스 대표에 신규 선임됐다.

/이범일기자

서울모터쇼, 어떤 신차 공개되나?

국내 출시 예정 신차 내수시장 공략나서

'2015서울모터쇼'에는 총 32개 완성차업체가 참가해 350여 대의 차량을 선보인다.

4월 2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언론 공개 행사를 시작으로 화려한 개막식을 연다.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등 국내 완성차업체와 수입차업체들은 올해 국내에 나올 신차들을 대거 소개할 예정이다. 내수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리는 자동차 업체의 전쟁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주력 차종인 LF쏘나타의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모델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올 뉴 투싼을 출품한다.

올 뉴 투싼은 최근 출시돼 누적 계약대수가 6300여대에 이를 정도로 인기몰이 중이며, LF쏘나타 PHEV는 6월께 국내에 출시된다.

현대차는 '서민의 발'로 불리는 중형트럭 마이티의 완전변경 모델 '올 뉴 마이티'도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올 뉴 마이티는 유로6 기준에 맞춘 디젤엔진을 탑재하고 외관 디자인도 바뀌는 등 출시 18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현대차는 도심형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 콘셉트카인 '엔듀로(ENDURO)'도 서울모터쇼에서 월드 프리미어로 선보인다.

이밖에 벨로스터를 기반으로 한 고성능 콘셉트카 'RM 15'와 오는 6월 출시 예정인 미니버스 '쏠라티'(수출명 H350)도 모터쇼 무대에 올린다.

르노삼성자 서울모터쇼 출품 라인업

15인승 미니버스 쏠라티는 현대차가 소규모 관광객 수송과 '엔안 의전용 시장을 겨냥해 만든 것으로, 전주 상용차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기아차는 신형 K5의 외관을 서울과 뉴욕에서 동시에 공개한다. 서울모터쇼와 같은 날 개막하는 뉴욕국제오토쇼에서도 신형 K5를 출품해 한미 양국 시장을 함께 공략하겠다는 구상이다.

2분기중 판매되는 신형 K5는 2010년 출시 후 5년 만에 선보이는 2세대 모델. 최근 공개된 렌더링 이미지상으로는 기존 모델보다 역동성과 세련미가 한층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형 K5 국내모델

기아차는 이와 함께 준중형 스포츠 세단 콘셉트카인 KND-9(가칭)도 전시한다.

르노삼성자는 1ℓ로 100㎞ 이상을 달릴 수 있는 콘셉트카 '이오랩'을 아시아 최초로 선보인다. 지난해 9월 파리모터쇼에 출품돼 화제가 된 모델, 3기통 가솔린 엔진과 6㎾ 리튬이온 전지로 구동되는 PHEV 차량이다. ㎞당 탄소배출량이 22g에 불과해 자체대 친환경차로 꼽힌다. 르노삼성자는 이외에 뉴 SM7노바, SM5 노바, SM3네오, QM5네오, QM3, SM3 Z.E까지 전 라인업을 전시한다.

쌍용자동차는 소형 SUV 티볼리를 필두로 체어맨 W, 렉스턴 W, 코란도 C, 코란도 스포츠, 코란도 투리스모 등 총 21대를 출품한다.

특히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SUV 콘셉트카 XAV와 올해 제네바모터쇼에서 선보인 전기차 '티볼리 EVR'을 앞세워 관객몰이에 나선다.

한국GM은 경차 스파크의 차세대 모델을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조만간 국내 판매될 신형 스파크는 현재 창원공장에서 시험 생산에 들어간 상태다.

/김태호기자

metro entertainment E

또 여동생? 마냥 어린 여동생은 아니에요

영화 '스물' 이유비

실제 성격과 비슷한 고등학생 캐릭터 유쾌한 현장 분위기 여유 가지고 연기 이미지 걱정? 한 단계씩 나아갈래요

아직까지 이유비(24)를 '견미리의 딸'로 기억하고 있다면 지난 25일 개봉한 영화 '스물'(감독 이병헌)은 그런 편견을 깨는 작품이 될 것이다. 스무 살 동갑내기 세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스물'에서 이유비는 이들 속에서 빛나는 여자 캐릭터로 배우로서 존재감을 확실하게 새겨 넣었다.

이유비가 '스물'에서 맡은 소희는 모범생 경재(강하늘)의 여동생이자 경재의 친구인 동우(이준호)를 짝사랑하는 고등학생이다. 드라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에서 연기한 강초코에 이어 또 다시 맡은 여동생 캐릭터지만 솔직하고 당돌하다는 점에서 전과는 다르다. 19금 단어도 서슴없이 말할 정도로 발칙한 매력도 있다.

"시나리오가 재미있었어요. '구가의 서'랑 '상의원'까지 두 편의 사극에서 어두운 캐릭터를 연달아 연기해서 밝은 걸 하고 싶었거든요. 감독님도 시나리오를 쓰면서 소희 역에 저를 생각했다고 말씀해주셔서 고마웠죠. 소희는 예전에 해본 여동생 캐릭터와 달리 조금 더 현실적이에요. 마냥 어리기만 한 여동생은 아니죠."

자신과 비슷한 점이 많은 캐릭터인 만큼 연기에 있어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었다. 소희의 리액션도 평소 이유비가 하는 행동들과 비슷했다. "감독님이 연기에 대해 지시하는 게 없었어요. 처음에는 소희를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건 아닌가 불안했죠(웃음). 그만큼 저를 믿어주신 것 같아요." 드라마 현장에서는 느낄 수 없는 여유도 '스물'에서 얻은 좋은 경험이었다.

"첫 촬영 전에 소희의 대사 표현이나 리액션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갔어요. 그런데 막상 촬영에 들어가니 사전에 준비해온 것보다 상황에 따라 호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여유를 갖고 연기하다 보니 조금 더 재미있었어요."

또래들이 함께 한 촬영현장은 늘 유쾌했다. 이유비는 "배우들끼리 촬영하고 모니터링하면서 늘 '빵' 터졌다"며 "그런 분위기가 보여 이렇게 재미있는 영화가 완성된 것 같다"고 말했다. 상대역으로 호흡을 맞춘 이준호와는 촬영 기간에 음악 방송 MC와 출연자로 다시 만나기도 했다. "준호 오빠랑 새벽까지 같이 촬영한 날이었어요. 때마침 2PM이 컴백한 때였거든요. 저는 MC라서 잠깐이라도 잠을 자러 나갔는데 오빠는 잠도 못 자고 사전 녹화를 했대요. 방송국에서 오빠를 다시 만났는데 새벽에 본 추레한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천의 얼굴'이라고 생각했죠(웃음)."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귀여운 여동생의 이미지를 갖게 됐지만 실제 이유비는 여동생과 남동생을 둔 장녀다(여동생은 최근 배우로 활동을 시작한 이다인이다). 다른 첫째들과 마찬가지로 집안에서는 늘 동생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자라왔다. 그럼에도 이유비가 지금처럼 여동생의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은 앳되고 귀여운 외모 때문일 것이다.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야 하는 배우로서는 지금의 이미지가 언젠가는 벗어나야 할 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유비는 "지금은 '스물'이 개봉했으니까 소희의 모습으로 대중에게 어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미지 변신에 대해서도 "다른 작품에서 기회가 온다면 그때 생각하려고 한다"며 "지금 머릿속은 소희 밖에 없다"고 했다. 자신의 이름을 대중적으로 알려준 어머니의 존재가 부담이 될 법도 하다. 하지만 이유비는 욕심 내지 않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갈 생각이다.

"많은 역할을 잘 소화해서 대중들에게 편안하게 보여주는 게 배우로서의 목표예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열심히 연기하면서 한 단계씩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연기 잘 하는 배우'라는 수식어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테니까요."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라운드테이블(이민기)·디자인/최송이

star bag

공효진·전도연과 한솥밥

남지현이 공효진, 전도연, 김민희 등이 소속돼 있는 매니지먼트 숲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아역배우 출신으로 올해 데뷔 11년차를 맞이하는 남지현은 최근 종영한 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를 통해 성인 연기자로 성공리에 안착했다. 현재 남지현은 차기작을 검토하고 있다.

AFA 여우주연상 수상

배두나가 지난 25일 중국 마카오 베네시안 리조트 베네시안 극장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안필름어워즈(AFA)에서 영화 '도희야'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배두나는 "영화배우로서 다양한 국경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는 배우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선후배 스릴러로 조우

주원과 유해진이 영화 '그놈이다'에 출연한다. 지난 16일 첫 촬영을 시작한 '그놈이다'는 여동생을 살해한 범인을 증거도 단서도 없이 무속의 힘으로 쫓는 샤머니즘 스릴러다. 주원과 유해진은 첫 촬영을 마친 뒤 서로의 호흡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올 하반기 개봉 예정이다.

'혼자가 편해졌어' 솔로 활동

걸그룹 티아라 멤버 **은정**이 신곡 '혼자가 편해졌어'로 솔로 활동에 나선다. '혼자가 편해졌어'는 이단옆차기가 작곡한 노래로 그동안 티아라가 선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스타일의 곡이다. 연인 사이의 권태기를 담은 노래로 발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청춘영화로 활기 되찾은 극장가

'스물' 개봉 5일만에 100만 돌파

침체돼 있던 극장가가 한 편의 청춘영화로 활기를 되찾고 있다. 김우빈, 이준호, 강하늘 등 청춘스타들이 총출동한 영화 '스물'이 개봉 첫 주말 흥행 질주 중이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스물'은 개봉 5일째인 29일 오후 4시30분 기준으로 누적 관객수 100만1013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개봉한 '수상한 그녀'(865만)와 동일한 속도다. 또한 코미디 장르 최초의 천만 영화인 '7번방의 선물'(1281만)과는 하루 차이 기록이다. 3월 개봉작 중에서는 지난 2012년 같은 달 개봉한 '건축학개론'(411만)보다 3일 빠른 속도로 앞으로의 흥행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스물'은 여자만 밝히는 백수 치호(김우빈), 생계 때문에 꿈을 접은 재수생 동우(이준호), 연애를 글로 배운 새내기 대학생 경재(강하늘) 등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순간을 함께 한 스무 살 동갑내기 세 친구의 이야기를 그린 코미디 영화다. 개봉 전 시사회를 통해 재치 넘치는 대사와 연출, 그리고 배우들의 열연으로 일찌감치 주목을 받았다.

한편 '위플래쉬'는 28일 하루 동안 11만6149명의 관객을 모으며 박스오피스 2위에 머물렀다. 누적 관객수는 114만5621명을 기록했다.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는 누적 관객수 562만2809명을 기록하며 박스오피스 3위를 차지했다.

/장병호기자

4월 韓영화 대세는 '중년·노년'

중년의 서글픔 '화장'·노년의 로맨스 '장수상회' 개봉 앞둬

4월을 맞은 극장가에 중년과 노년의 삶을 그린 한국영화가 동시에 개봉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달 9일 개봉하는 거장 임권택 감독의 102번째 작품 '화장'과 강제규 감독의 신작 '장수상회'다.

'화장'은 제28회 이상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소설가 김훈의 동명 작품을 원작으로 죽어가는 아내와 젊은 여자 사이에 있는 한 중년 남성의 고뇌를 그린다. '국민배우' 안성기가 주인공인 오 상무 역을 맡았으며 김호정과 김규리가 각각 아내와 젊은 애인 추은주 역으로 호흡을 맞췄다.

영화는 삶과 죽음을 모두 바라보게 되는 중년에 느낄 법한 서글프고 서러운 감정을 관조적인 시선으로 담는다. 죽음을 상징하는 아내의 삶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추은주 사이에서 고민하는 오 상무의 모습은 임권택 감독의 절제된 연출과 안성기의 열연에 힘입어 욕망을 넘어선 인간의 본능으로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다. 안성기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인간의 이픔을 이야기하는 영화"라고 작품을 소개했다.

'화장'과 같은 날 개봉하는 '장수상회'는 노년에 찾아온 로맨스를 그리는 영화다. 재개발을 앞둔 서울의 한 마을을 배경으로 무뚝뚝한 성격의 70대 노인 성칠(박근형)이 옆집에 이사 온 소녀 같은 금님(윤여정)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영화는 노년이지만 마치 10~20대처럼 설레는 사랑을 하는 성칠과 금님의 모습을 통해 세월과 무관한 사랑의 가치를 이야기한다. 또한 영화 후반부에는 반전을 담은 드라마로 감동도 함께 선사하고 있다. '쉬리' '태극기 휘날리며' 등 블록버스터 영화를 주로 만들었던 강제규 감독의 힘을 뺀 소박한 연출, 그리고 박근형, 윤여정의 연기 호흡이 인상적이라는 평가다.

인터뷰에서 만난 박근형은 "10대든 30대든 70대든 사랑의 조조함과 기대감은 똑같다"고 본다며 "70대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흥미보다는 세대가 달라도 한결 같은 사랑 이야기로 봐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젊은이들도 함께 즐기는 국악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기획공연 '금요공감' 전석 매진

지난 6일 첫 선을 보인 '금요공감'은 국악과 클래식, 재즈, 대중음악, 연극, 현대무용, 문학 등 다양한 장르가 융합된 공연이다.

이달엔 드럼연주자 남궁연과 국립국악원 무용단 이주리의 협업 무대, 재일교포 출신 타악 연주자 민영치와 재즈 피아니스트의 만남, 거문고와 가곡 선율에 맞춘 현대무용가 홍승엽의 즉흥 퍼포먼스, 기타리스트 샘리와 대금 연주자 한충은의 협연 등이 펼쳐졌다.

국립국악원은 "'금요공감'을 통해 관객들의 연령층이 젊어졌다"며 "지난달까지 공연 예매자의 연령층은 40대가 35.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이달엔 20대(25.3%)와 10대(22.9%) 관객층이 절반 가까운 48.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객 구성도 다양해졌다. 그동안 국악 전공자나 국악 애호가층이 많았지만 공연이 입소문을 타면서 국악 외 전공 대학생 단체 관람을 비롯해 배우, 소설가, 아나운서, 방송 작가 및 클래식 등호인, 화랑 관계자 등이 '금요공감'을 관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립국악원은 이달부터 40주간 풍류사랑방에서 매주 수·목·금·토요일마다 '금요공감'을 비롯한 이러 형태의 국악 공연을 진행한다.

풍류사랑방은 한옥 형태로 지은 130석 규모의 소극장으로 온돌마루 방석에 앉아 마이크와 스피커 등 음향기기의 도움 없이 국악기 본연의 소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수요일에는 전통춤, 목요일은 전통 기악과 성악, 토요일은 문화계 주요 인사의 토크 콘서트가 진행된다. '금요공감'은 오는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마다 열린다.

/김지민기자 tumskim@

"모성애, 강아지 키운 경험으로 몰입했죠"

가수 '크레용팝' 초아 '덕혜옹주'로 뮤지컬 데뷔

그룹 크레용팝 초아가 모성애로 관객을 울릴 예정이다.

초아는 뮤지컬 '덕혜옹주'를 통해 데뷔 후 처음 뮤지컬 무대에 오른다. 뮤지컬 '덕혜옹주'를 집필한 문예영과 함께 덕혜 역에 1인2역의 더블 캐스팅됐다.

지난 26일 신사동에 있는 한 연회장에서 열린 '덕혜옹주' 제작발표회에서 초아는 "당연히 부담된다"며 "문예영이 더블 캐스팅돼 다행이다. 내 또래랑 됐다면 더 어려웠을 거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대선배이기 때문에 무조건 선배처럼 하려고 노력 중이다"고 각오를 전했다.

그는 딸 정혜를 잃어버린 덕혜의 모성애를 표현해야 한다. 이에 대해선 "결혼을 해보진 않았지만 생후 2개월된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다. 강아지를 통해 덕혜에게 몰입할 수 있었다"고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 준비한 부분을 말했다.

문예영은 "전문 작가가 아니니까 생각하고 느끼고 울어도 보면서 작가가 아닌 한 인간으로 글을 썼다"며 "덕혜옹주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다. 등장한 사진 속 덕혜가 내게 '살고 싶다'고 말을 거는 듯했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작품을 제안하려고 시놉시스를 쓰기 시작한 것"이라고 극을 쓴 배경을 설명했다.

연출을 맡은 성천모는 "비운의 마지막 공주라는 소재가 흔하게 느껴져 작품에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대본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다. 정혜가 왜 23세에 실종됐는지 관객과 공유하고 싶어졌다"며 "가족이야기에 초점을 맞췄다. 일본인 아버지가 딸을 찾는 과정을 그린다. 한국인 일본인의 개념이 아닌 딸을 잃어버린 부모의 감정을 봐달라"고 관전 포인트를 설명했다.

'덕혜옹주'는 조국과 가족에게 버림 받았지만 모든 걸 잊지 않으려는 덕혜, 가족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시대와 가문에 휘둘린 덕혜의 남편 다케유키, 덕혜와 다케유키 사이에서 그 어느 쪽도 될 수 없는 딸 정혜의 고뇌와 사랑을 통해 시대의 아픔을 이야기한다. 다음달 3일부터 6월 28일까지 대학로 SH아트홀에서 공연된다.

/정효진기자 jsonhj89@

셰프에게 점령당한 TV

요리실력에 맛있는 입담까지 갖춰 '쿡방'부터 예능까지 전천후 활약

백종원

최현석

케이블 채널에서 시작된 요리 프로그램 일명 '쿡방'은 이제 방송가에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요리전문 채널은 물론 종합편성채널, 지상파도 앞다퉈 스타 셰프(Chef)를 섭외해 시청률 공략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주방장이라는 직업에 걸맞는 뛰어난 요리 실력을 뽐내며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뿐만 아니라 개그맨 뺨치는 입담과 준수한 외모로 연예인 못지않은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

최현석 셰프는 190㎝가 넘는 큰 키와 준수한 외모로 여성 팬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그는 '신동엽 성시경의 오늘 뭐 먹지?'에 게스트로 출연해 멋있게 소금 뿌리는 법, 멋있게 칼 가는 법 등 요리 비법과는 다소 거리가 먼 '허세 넘치는 비법'을 소개해 웃음을 안겼다. 현재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서 허셰프(허세+셰프) 캐릭터로 맹활약 중이다.

배우 소유진의 남편으로도 유명한 요리연구가 백종원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요리 비법과 푸근한 이미지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한식대첩2'에 심사위원으로 출연했을 당시 참가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요리에 대한 방대한 지식으로 프로그램을 한층 더 풍성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출연료 전액을 한식조리학과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등 외식업계 대부다운 통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선 달걀말이, 볶음밥, 샌드위치, 토르티야 등 친근하고 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 비법을 공유하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샘킴과 레이먼킴은 차세대 예능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MBC 인기드라마 '파스타'의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진 샘킴은 '냉장고를 부탁해'와 같은 요리 프로그램은 물론 MBC '진짜사나이'와 브라운아이드소울 영준의 '나 생각뿐' 뮤직비디오까지 출연하며 전천후 방송인으로 거듭났다.

레이먼 킴 역시 '올리브쇼'와 같은 요리 프로그램은 물론 SBS '정글의 법칙 in 인도차이나' 편에 참여해 때 동료 출연진들로부터 요리 솜씨를 칭찬 받았다. 배우 이성재는 "내가 작은 대왕 조개로 레이먼킴이 조개국을 만들어줬는데 국물이 정말 예술이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지민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 MBC '갑을소통프로젝트 48시간'

오후 [illegible]

배우 최민수가 이인제 의원·김영식 천호식품 회장과 만났다. 방송은 '갑'의 파워를 가진 리더들이 지위와 직책을 내려놓고 진정한 소통을 위해 현장으로 가는 이야기다. 올 초 MBC 드라마 '오만과 편견'을 통해 정의로운 검사 문희만 역으로 묵직한 메시지를 던진 배우 최민수가 진행을 맡았다. 30일 1편에서 이인제 의원은 시니어 사원 이중재로 변신해 대형마트에 위장 취업할 예정이다. 천호식품 김영식 회장은 생산공장 말단사원 박동현이 된다. 두 사람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

◆ KBS1 '그대가 꽃'

오후 7시30분

영화 '울지마 톤즈'의 주인공이자 진정한 나눔을 보여준 故 이태석 신부가 의사가 아닌 사제가 된 이유를 조명한다. 이태석 신부는 10남매 중 아홉째로 태어났다. 홀어머니 아래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 속에서도 의과대를 졸업한 인재다.

◆ KBS2 '안녕하세요'

오후 11시10분

가수 변진섭·송유빈·가인·허각이 출연한다. 특히 허각은 녹화 현장에서 단신이기에 가능했던 여러가지 웃음 포인트를 만들었다. '안녕하세요'만의 양말스테이지에서는 허각을 위한 긴급 무선 단상이 준비되고, 가인은 키 때문에 허각을 부러워했다.

◆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오후 9시40분

배우 이규한·김기방이 출연한다. 이규한은 무좀, 탈모 사실 등은 물론 여자친구의 요리실력까지 폭로하며 솔직함으로 웃음을 선사한다. 43년 경력의 중식 셰프 이연복과 8년 경력 한식 셰프 이원일이 요리 대결을 펼친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0일 (월)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생방송 투데이	00 [illegible] 25 [illegible] Pop (재) 45 어디 간다 GO! (재) 55 [illegible] (재)
19시	00 KBS 뉴스 7 30 [illegible] 그대가 꽃	50 달콤한 비밀	15 불굴의 차여사 (87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달려라 장미 (74회)	[illegible] (재) 20 [illegible] 50 [illegible] Like Family (재)
20시	25 당신만이 내사랑 (98회)	00 [illegible] 55 [illegible]	55 [illegible]	00 SBS 8 뉴스 55 [illegible]	00 [illegible] (재)
21시	00 KBS 뉴스 9		00 [illegible]		00 [illegible] (재) 30 [illegible] 40 [illegible]
22시	00 가요무대	00 블러드 (13회)	00 빛나거나 미치거나 (15회)	00 풍문으로 들었소 (15회)	30 [illegible] (재)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TV [illegible]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MBC 다큐스페셜	15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20 [illegible] (재)
24시	30 [illegible]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illegible] [illegible]	15 MBC 뉴스 24 45 스포츠 특선	35 나이트라인	00 [illegible] 30 [illegible]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스포츠
18시	30 유자식상팔자 (83회) (재)	00 꽃보다 할배 1회 (재)	00 신사의 품격 (4회)	00 TV [illegible]	19:00 프로배구 챔피언결정전 남자부 2차전 삼성화재 vs OK저축은행 KBS N 스포츠, SBS 스포츠
19시	55 JTBC 뉴스룸	40 [illegible] (33회)			
20시	50 JTBC 뉴스룸	40 [illegible]	00 오늘 뭐 먹지? [illegible] 00 오늘 뭐 먹지? [illegible]	00 <극한직업> [illegible]	
21시	40 냉장고를 부탁해 (26회)	40 SNL 코리아 시즌6 (7회)	00 [illegible] 40 올리브쇼 2015 (8회)	00 [illegible]	
22시			50 오늘 뭐 먹지? [illegible]	00 사이언스 오브 스투피드 (15회) 30 사이언스 오브 스투피드 (16회)	
23시	00 비정상회담 (38회)	00 [illegible] (15회)	20 오늘 뭐 먹지? [illegible]	00 항공사고 수사대 [illegible]	
24시	30 [illegible]	21 [illegible]	00 [illegible] 00 [illegible] 20 2015 [illegible]	00 <극한직업> [illegible]	

KIA, LG에 통쾌한 역전승

브렛 필 3점포에 투런 홈런까지… 최희섭도 시즌 첫 홈런

KIA 타이거즈가 브렛 필의 끝내기 홈런과 함께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KIA는 29일 광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5 타이어뱅크 KBO리그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7-6으로 승리했다.

5-6으로 뒤진 9회 말 브렛 필의 끝내기 투런 홈런이 승부를 뒤집었다. 브렛 필에게는 시즌 2호이자 개인 첫 끝내기 축포였다.

1회 초부터 기선을 제압한 것은 LG였다. 1사 후 정성훈이 볼넷을 골랐으며 박용택이 우전 안타로 기회를 이어갔다. 1사 1, 3루에서 최승준이 우익수 희생 플라이로 선취점을 기록했다.

2회 초에는 김용의가 빠른 발로 추가점을 뽑았다. 1사 후 김용의는 중전 안타로 출루한 뒤 2루와 3루 도루를 연이어 성공시켰다. 이어진 최경철의 2루 땅볼에서 홈을 밟았다.

이후 LG는 손주인, 오지환의 연속안타와 정성훈의 볼넷으로 2사 만루를 잡았다. 그러나 박용택이 아쉽게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득점 기회를 놓쳤다.

KIA는 0-2로 끌려가던 3회 말 브렛 필의 3점포로 승부를 뒤집었다. 1사 1, 2루에서 브렛 필은 LG 선발 임지섭의 4구째를 노려 좌측 담장을 넘겼다. 4회 말에는 김원섭이 적시타로 1점을 추가해 4-2로 앞서나갔다.

그러나 LG는 쉽게 물러날 상대가 아니었다. 6회 초 6안타를 집중시키며 4점을 뽑아내 승리의 기운은 다시금 LG로 향했다.

포문을 연 것은 좌측에 2루타를 날린 선두타자 정의윤이었다. 김용의가 1루 직선타로 물러났지만 대타 이진영이 중전 적시타로 1점을 따라 붙었다. 이어 손주인의 안타로 1, 2루가 된 상황에서 오지환이 좌익수 키를 넘기는 2루타를 날려 동점을 만들었다. 계속되는 1사 2, 3루에서 정성훈이 중전적시타를 때려 승부는 6-4로 다시 뒤집혔다.

7회 말 최희섭의 시즌 첫 홈런인 솔로포로 1점차로 추격에 나선 KIA는 5-6으로 뒤진 9회 말 극적인 역전의 기회를 잡았다. 대타로 나선 김주찬이 볼넷으로 출루했고 무사 1루에서 브렛 필이 초구 직구를 때려 우중간 담장을 넘기는 투런 홈런을 날렸다.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던 경기는 7-6 KIA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KIA는 개막전에 이은 2연승을 내달렸다.

한편 개막전을 승리로 장식한 넥센 히어로즈는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3-5로 패배했다. 롯데 자이언츠는 KT 위즈를 상대로 5-4로 승리하며 2연승을 이어갔다. 두산 베어스도 NC 다이노스를 4-1로 꺾고 2연승을 기록했다. 삼성 라이온즈는 SK 와이번스에 7-3으로 패배하며 1승1패를 나눠 가졌다.

29일 오후 광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 대 LG 트윈스의 경기 9회말 1사 1, 2루에서 KIA 브렛 필이 역전 3점 홈런을 친 뒤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강정호·추신수 무안타 '침묵'

시범경기 타율도 하락… 강정호는 30일 선발 출전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가 미국 메이저리그 시범경기에서 3루수로 교체출전해 1타수 무안타를 기록했다.

강정호는 29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브랜든턴의 맥케크니 필드에서 열린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시범경기에서 6회초 수비 때 코리 하트를 대신해 출전했다.

하트는 1루수로 나섰지만 강정호는 3루수 자리에 섰다. 3루수로 선발출전한 션 로드리게스가 1루로 이동했다.

강정호는 이번 시범경기에서 주로 유격수로 나서면서도 3루수, 2루수로도 경험을 쌓으며 유틸리티 내야수의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다. 이날 경기에서는 18일 휴스턴 애스트로스전 이후 11일, 5경기 만에 3루수 자리에 섰다.

4이닝을 소화하는 동안 강정호는 한 차례 공을 잡았다. 9회초 토론토 선두타자 다윈 푸고의 땅볼 타구를 잡은 강정호는 정확하게 1루수 앤드루 램보에게 송구했다.

타석에 설 기회도 한 차례뿐이었다. 강정호는 8-3으로 앞선 6회말 2사 2루 타석에 등장해 상대 좌완 푸이스 페레스에게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

전날 미네소타 트윈스전에서 삼진 없이 경기를 마쳐 7경기 연속 삼진의 악연을 끊었던 강정호는 다시 배트를 헛돌려 이번 시범경기 12번째 삼진을 기록했다.

휴딤 피츠버그가 8-3으로 승리하면서 9회말 공격도 치르지 않아 강정호는 두 번째 타석에 들어서지 못했다. 강정호의 타율은 0.129(31타수 4안타)로 더 떨어졌다. 강정호는 30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전에 2루수로 선발출전한다.

한편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는 빠른 공에 고전하며 무안타로 침묵했다.

29일 미국 애리조나주 서프라이즈의 서프라이즈 스타디움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시범경기에서 추신수는 2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4타수 무안타 2삼진을 기록했다. 시범경기 타율은 0.167(30타수 5안타)로 떨어졌다. 텍사스는 이날 2-3으로 역전패했다. /장병호기자

추신수 강정호

손연재, 개인종합 4위

시즌 첫 리스본 월드컵 종목별 결선진출

손연재(21·연세대·사진)가 올 시즌 처음 출전한 월드컵에서 개인종합 4위에 올랐다.

손연재는 29일(한국시간) 포르투갈 리스본 카살 비스토스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열린 올 시즌 첫 국제체조연맹(FIG) 리듬체조 월드컵 시리즈에서 리본 18.250점(3위), 곤봉 17.950점(3위)을 받았다. 전날 받은 후프 18.150점(3위), 볼 17.700점(5위)을 더한 4종목 합계 72.050점으로 개인종합 4위를 차지했다.

아쉽게 메달은 놓쳤지만 전 종목에서 3~5위를 기록하며 4종목 모두 상위 8위까지 오르는 종목별 결선에 진출했다.

손연재는 전날 볼 종목에서 볼을 높이 던진 선 채로 양발 사이로 받는 동작에서 볼을 떨어뜨리는 실수를 했다. 그러나 이날 경기는 완벽했다.

리본과 곤봉 모두 지난 시즌보다 어려운 난도들을 무난하게 소화하며 큰 실수 없이 연기를 마무리했다.

개인종합 1~3위는 리듬체조의 절대 강자인 러시아가 차지했다. 알렉산드라 솔다토바가 총점 73.600점으로 같은 러시아 선수인 마르가리타 마문(73.250점)을 0.350점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세계 선수권 우승자인 야나 쿠드랍체바는 72.400점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장병호기자

골프 황제 계속되는 시련

우즈, 18년만에 세계랭킹 100위 밖으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0·미국·사진)가 18년여 만에 세계 랭킹 100위 밖으로 밀려나게 됐다.

세계 골프 랭킹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세계 랭킹 96위인 우즈는 30일에 새로 발표되는 세계 랭킹에서 101위가 된다.

물론 현재 진행 중인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발레로 텍사스오픈 등이 끝나야 정확한 순위가 나온다. 하지만 이 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우즈는 101위 또는 102위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우즈는 지난달 2일자 세계 랭킹에서 56위로 밀리면서 2011년 11월에 50위를 한 뒤 3년 2개월 만에 50위권 밖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불과 1개월여 만에 100위권 밖으로까지 추락하게 됐다.

우즈가 세계 랭킹 100위 바깥이었던 것은 1996년 9월 29일자 순위 221위가 최근이다. 우즈가 30일자 순위에서 100위 밖으로 밀리면 18년 6개월 만에 100위권 진입에 실패하게 된다.

우즈는 1996년 9월 프로 전향을 할 때 세계 랭킹이 433위였다. 이후 같은 해 라스베이거스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하며 75위로 순위를 올렸다. 1997년 처음으로 세계 랭킹 1위를 차지했다.

한편 우즈는 다음달 2일부터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셸 휴스턴 오픈에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 다음달 9일 막을 올리는 마스터스를 앞두고 실전 감각을 쌓을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됐다.

우즈는 2월 초 PGA 투어 파머스 인슈어런스오픈 대회 도중 허리 부상으로 기권한 뒤 투어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마스터스에 출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용호기자

9호선 무료 급행버스 운행

서울시, 연장노선 안정화 출퇴근 수송대책 마련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 개통 후 첫 출근일을 하루 앞두고 서울시가 출근전용 급행버스를 무료운행하는 것을 포함한 3대 비상수송 대책을 내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9일 오전부터 개화역 종합관제센터를 점검한 후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9호선 운행이 안정화될 때까지 '비상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현장시장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우선 혼잡도 완화를 위해 무료 전용버스를 약 100대까지 대폭 증차한다. 출근 전용 급행버스 8663번은 15대에서 19대로 늘린다. 이에 따라 배차간격이 3~4분대에서 2~3분대로 줄 것으로 보인다. 이 버스는 가양역, 염창역, 당산역, 국회의사당역, 여의도역 5개역 구간을 지난다.

출근 전용 직행버스도 30대가 신규로 운행된다. 김포공항역 4번 출구, 가양역 10번 출구, 염창역 4번 출구에서 국회의사당과 여의도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 관용버스 28대도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된다. 출근 전용 전세버스는 다음 달 3일부터 20명 이상이 신청하면 무료로 운행해 김포공항역, 가양역, 염창역 등에서 출발한다.

서울시는 또 안전사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당초 30개역 91명이었던 안전관리요원을 46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요원들은 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 김포공항역, 가양역, 염창역, 당산역에 역별로 50명씩 배치된다. 안전 여부에 따라 역사 내 출입구와 개찰구 진입이 제한될 수도 있다.

박 시장은 또 이날 오후 남경필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과 면담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9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로 여의도와 강남권역 기업체에 다니는 만큼 출퇴근시차제와 유연근무제를 확산하기 위해 기업들에도 협조를 구했다.

시는 아파트관리사무실과 SNS 등을 통해 비상대책을 홍보하고, 그럼에도 혼잡이 계속되면 급행열차 운행 비율 조정도 검토키로 했다.

박 시장은 "불편을 미리 개선하지 못한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문제 해결에 모든 행정력을 쏟겠다"며 "우회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등 시민의 협조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선준기자 rusyunjun@metroseoul.co.kr

한 시간 소등으로 지키는 지구 지구촌 불끄기(Earth Hour) 행사가 열린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소등전후 모습. 지구촌 불끄기 행사는 매년 3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 8시30분부터 60분 동안 '전등 끄기'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탄소배출량을 감축시키는 세계 최대규모의 환경캠페인이다. /연합뉴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2015 신혼부부 나무심기 행사 28일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에서 열린 '2015 신혼부부 나무심기' 행사에서 신혼부부들이 5년생 잣나무를 심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신혼부부와 내빈, 산림청 관계자들은 총 1000 그루의 잣나무를 심었다. 유한킴벌리는 매년 봄 신혼부부들과 나무를 심어왔으며 그 동안 2만여명의 신혼부부들이 참여해 왔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역 출구 10m 이내 '금연구역' 추진

서울시의회가 시내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최판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중구1)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혜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작2)과 공동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개회하는 제259회 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다.

현행 서울시 조례는 도시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하천변의 보행자길, 학교정화구역, 시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 기준은 따로 없지만 개별 자치구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관악구는 2011년부터 구내 지하철역 출입구 20m 주변을 영등포구는 지난해 4월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10m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서초구는 오는 4월부터 구내 지하철역 출입구 10m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7월부터 서울시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흡연을 못하게 된다.

최 의원은 "임산부, 청소년을 포함한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 출입구에서 흡연이 빈번한데도 이들에 대한 제재가 없었다"며 "간접흡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도시 미관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월 금연구역의 범위를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보도(보행로)와 어린이통학버스, 보행자 전용도로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내놓았으나 흡연권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비판을 받아 철회한 바 있다.

최 의원은 "흡연권 제약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보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준기자

충북 구제역 21일째 잠잠

내달초 상황 종료될 듯

지난해 12월부터 충북지역 양돈농가를 휩쓸었던 구제역이 소강 국면에 들어가면서 다음 달 초 상황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9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진천군 덕산면의 양돈농가에서 마지막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도내에서 21일째 의심 증상을 보이는 돼지가 더는 나오지 않고 있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12월 3일 진천군 진천읍의 한 양돈농장에서 구제역이 처음 나온 뒤 35곳이 감염됐다.

그동안 3만2820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됐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구제역 확산이 주춤해진 가운데 감염됐던 농가들도 소독 등을 마쳐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속속 이동제한이 풀리고 있다.

특히 도내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진천읍의 농장은 두 차례의 환경위생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다 지난 26일 3차 검사에서 바이러스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동제한이 해제됐다.

현재 도내에서 이동제한에 묶여 있는 농가는 괴산 3곳을 비롯해 모두 6곳이다. 이 가운데 3곳은 환경위생검사가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3곳도 이 검사를 위한 축사 등의 소독에 총력을 기울여 조만간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 농가가 환경위생검사를 통과하고 추가 감염농가가 나오지 않으면 도내에서는 구제역에 따른 이동제한이 모두 풀리게 된다.

만일 이들 농가가 환경위생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구제역 상황해제는 이달 말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위생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21일 이후에 추가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충북은 일단 진정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충남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상황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선준기자

"산나물 채취도 범죄"

남부산림청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남부산림청은 '특별사법경찰'과 공무원 등 41명의 9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내달 말까지 특별 단속을 벌인다.

허가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울릉군산림조합과 협약을 체결, 내달 6일부터 한 달간 3년 이상 울릉군에 거주한 주민에 한해 1500ha의 군내 국유림에서 하루 20kg까지 산나물 채취를 허용키로 했다. /유선준기자